SEP 2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38 1982년 9월 2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September 27, 1982

미국밀입국팀 잡혀

한인5명 도보 월경시도

미국경순찰대 운반책도 검거

토론토에서 불법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하던 한국인 5명과 이들을 국경넘어로 건네주던 교민 K씨가 미국 이민국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퀘벡주 몬트리얼근교의 캐나다·미국 국경을 넘어 뉴욕시까지 가려던 이들은 국경을 넘는데는 성공했으나 곧 미국국경수비대(Border Patrol)에 체포, 인근 이민국으로 이송되어 오는 29일 첫재판을 받는다.

토론토 블루어거리에서 사업하는 K씨는 자기 가게에서 헬퍼로 쓰던 C씨등을 밴·트럭에 태워 17일 하오2시 몬트리얼로 떠났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K씨는 국경에서 일행을 하차시켜 도보로 산림이 우거진 국경을 넘게한 후 자신은 국경초소를 합법적으로 넘어 이들과 만날 장소로 갔다가 체포된 것이다.

24일 K씨의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우리집에서 고용하던 사람을 인정에 끌려 그분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려다가 이렇게 됐다. 남편은 29일 재판을 받은 후 곧 돌아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토론토에 온 한국인 방문자들중 일부는 미국까지 가보려고 하지만 미국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의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다. 지금까지 캐나다와 미국 이민국에 알려진 월경방법은 도보잠입법외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시민권을 이용하는 방법, 미영주권을 우송으로 받는 방법등이 많다.

일부 알선책들은 야밤에 입국희망자들을 국경근처에 내려놓고 "국경을 넘었다"고 속인 후 돈만 챙겨 도망치기도 했다.

이번에 체포된 5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여름 한국의 주중회목사가 인솔해 온 불법체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들어서도 일부 토론토체류 한국 방문객들은 국경알선책에게 2~3천달러씩 주고 무사히 미국에 입국했다.

금리 다시 하락 15%

전망불투명, 미국금리는 오름세

지난3주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은행금리가 다시 하락, 우대금리(Prime Rate)가 80년12월이후 최하로 내려와 15%까지 됐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중앙은행금리가 23일 지난주의 13.42%에서 13.18%로 떨어지자 캐나다의 주요은행(Chartered Banks)들은 최우선 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를 지난주 15.5%에서 15%로 내렸다.

이에따라 주요 은행의 1년만기의 모기지 이자율은 16.75%로 떨어졌다.

금년 여름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금리로 채무자들은 안도의 숨을 돌리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금리는 최고 5%차이가 나 캐나다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나, 미국금리는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 금리추세를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캐나다외환은행의 이수신 전무는 24일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회복의 전망이 아직 안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우대금리가 12%이상이면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으며, 금리가 당분간 12%이하로 떨어질 전망은 없다고 말한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금리하락추세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가의 입김으로 일시 내려왔으나 미국금리는 금주부터 하락추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 533-2361

영어실력 향상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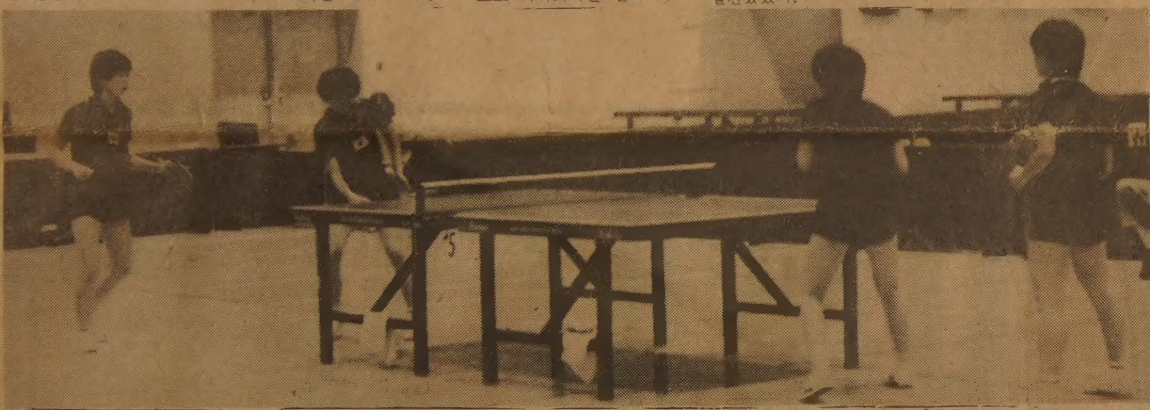
토론토시교위 강력지시

토론토교육위원회는 관내 각 초급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기로 23일밤 가결했다.

토론토위원회의 이 결정은 최근 문교부가 토론토의 7~10학년 사이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영어교육방법이 좋지 않다고 비난한데 따른 조처이다.

교육위원회는 3개년계획을 수립, 교사들에게 영어 및 기타 교과목에 대한 교수법을 가르칠 방침이며 학교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역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교수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을 듣도록 할 계획이다.

문교부 장학관들이 토론토내 초급학교 순시결과 많은 교사들이 토론토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과목이 영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었다.



◆23일 노위치·유니온탁구대회에서 김숙(왼쪽서 두번째)·이계선조가 같은 한국팀의 김미정·신현숙조와 단체전 1·2위를 다투고 있다 (관계기사 2면)

추석·한인의 날·워커-톤·정경화

무르익는가을 풍성한행사

금주에 14가지 교민행사 겹쳐

여름이 다 가버렸나 싶더니 어느새 9월도 꼬리만 남기고 있다.

9월과 10월이 교차되는 이번주(9월27일~10월3일)는 캐나다 교민에게 여러가지 의미에서 뜻깊고도 바쁜 1주가 될듯. 1년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한가위 추석명절, 한인의 날 기념행사, 본격 단풍철에 접어들어 사진촬영대회, 단풍관광을 비롯, 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모금 워커톤대회, 정경화연주회, 패션쇼 등 각종 대소행사 14개가 이번 주에 겹쳤다.(금주의 행사 일람 참조)

1일(금)은 추석이자 한국에서는 국군의 날도 겹친 공휴일, 첫 3일간의 연휴로 지켜져 고국의 가족·친지들과 전화로나마 아쉬움을 나누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이날밤 토론토총영사관은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한·카인사들을 초청, 로열·욕호텔에서 리셉션을 갖는다.

1일은 또 한인 이민사상 최초의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한인총연합회 주최로 몬트리얼 쉐라톤호텔에서 개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3일까지 사흘간 기념식, 심포지엄, 한국고전예술제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8개의 행사가 겹치는 2일(토). 우선 상오 9시30분 써니브룩공원 축구장에서는 한인양로원 건립기금 마련 보행마라톤 워커톤대회와 아울러 토론토 한인회가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단풍과 미녀"를 주제로 한 한인사진협회·한국일보사 주최의 제7회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상오11시)도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행사. 보이드·콘저베이션 팍에서 맛있게 싸온 바베큐 점심을 나누며 가족과 함께 "미녀와 단풍"의 멋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같은 날 1시30분 스카보로 도서관위원회 주최로 한·카합동 추석놀이가 씨다브레도서관에서 열려 명절풍습과 고유음식을 선보이는 연례행사로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천주교의 한맘노인회 주최 단풍관광은 상오9시에 떠나 하오8시에 돌아온다.

행선지인 무스코카, 페리사운드는 세계적인 단풍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4면 단풍안내 참조)

이날의 마지막 행사는 하오7시 진명여고 동창회가 주최하는 "편물 패션의 밤". 판매보다는 편물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두는 디자이너 서은복씨의 작품에 동창관계 남·녀 교민모델들이 등장한다. 장소는 블루어의 한인연합교회.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토론토·심포니의 초청으로 로이·톰슨·홀에서 29·30일 2일간 협연을 갖는 것을 금년 가을의 클래식음악계의 대 수확으로 꼽는다면 민요가수 최정자의 추석 대공연(뉴서울식당, 23일부터 2주간)은 흘러간 한국가요를 즐기는 사람에겐 좋은 기회이다.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을 젊은이를 위한 집회 김준곤목사 강연(28~30일), 실협정기이사회(30일), Y이사회도 이번주의 행사이다.

미술행사로는 영·스트릿과 하이웨이 7에 있는 화랑 웨이사이드·갤러리(전화 886-1667)에서 지난 1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김인호, 조중형, 엄혁, 조영미, 김길수, 정성덕 6인의 그룹그림 전시회가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금주의 행사▶

(9월27일~10월3일)

◆23일부터 2주간 최정자(민요가수) 추석대공연
곳: 뉴서울(529 Bloor St. W. Tor.)
연락처: 533-3545, 1500

◆28일(화)~30일 하오 6:30 젊은이를 위한 특별집회
강사: 김준곤 목사
주최: K.I.V.F., SOWERS, Y.F.C.
곳: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29일(수), 30일(목) 하오 8:00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회 - 토론토심포니와 협연
곳: 로이·톰슨·홀(60 Simcoe St.)
티켓문의: 593-7769

◆30일(목) 하오6:30~8:30 토론토 한인Y이사회
곳: West End YMCA 이사실
연락처: 536-1166(김창열)

◆30일(목) 하오6시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이사회
곳: Inn on the Park Hotel(레슬리×에글린톤)

◆10월1일(금) 하오6~8시 총영사관 개천절 리셉션
곳: 로얄요크호텔 콘서트홀

◆1일(금) 부부합창단 모집마감
연습장소: 빌라델비아장로교회(7 Grapna Ave.)
연락처: 881-8879(이병규)

◆1일(금)~3일(일) 한인의 날 기념행사
곳: 쉐라톤호텔(몬트리얼)
주최: 한인총연합회

◆2일(토) 상오 11시 제7회 사진촬영대회
주최: 한인사진협회·한국일보사
곳: Boyd Conservation Park
(이슬링턴×하이웨이 7 북쪽)
연락처: 438-4435(전)·533-2361(한국일보)

◆2일(토) 상오 9시30분 양로원기금마련 보행마라톤
곳: 써니브룩공원 축구장(에글링턴×레슬리)
연락처: 826-6664(천충환)

◆2일(토) 하오1:30 한·카 합동 추석놀이
곳: 시다브레도서관(스카보로)
(545 Markham Rd. Scar.)
주최: 스카보로 도서관위원회
연락처: 928-5343(유형송)

◆2일(토) 상오9-하오8시 한맘노인회 단풍관광
행선지: 무스코카및 페리·사운드
연락처: 863-0415(천주교회)

◆2~3일(토,일) 「단풍전」바둑대회
주최: 민중신문사
곳: 한국기원(653A Bloor St. W.)
연락처: 533-0168(한국기원)

◆2일(토) 상오9시 미시사가한글학교 개강
곳: 퀸·엘리자베스고교(60 South Service Rd.)
연락처: 274-6127(Mrs.리)

◆2일(토) 하오7시 진명「패션의 밤」
곳: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친교실(300 Bloor St. W.)
연락처: 275-0339(윤봉림)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영규
편 집 인: 이석현
인 쇄 인: 박정서
광 고 국 장: 송광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기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상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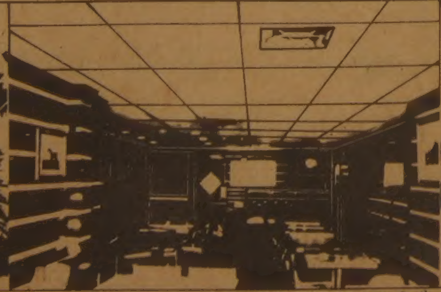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크링로 BLOOR 에서 만납시다!!

• 본건물

• 150명 수용의 메인 홀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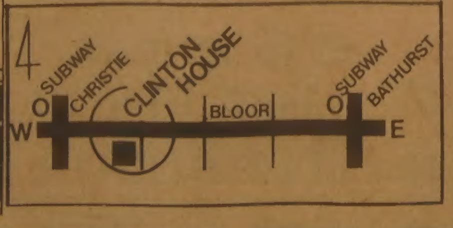
• 50명 수용의 미팅 홀 2개



• 50명 수용의 연회실 2개

• 30명 수용의 칵텔 라운지

친한 친구와…
다정한 연인과…
각종 파티·회갑연·결혼피로연시…
● 점심식사(중화요리) $3.50
● 맥주 한병포함한 점심을 $5.00에 써비스 합니다.



대표 김영규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535-954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여자팀 1.2등 나눠

캐나다탁구, 남자는 6위

한국여자탁구가 캐나다오픈을 휩쓸고 단체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

22, 23일 양일간 이토비콕의 올림픽스타디엄에서 열린 노위치·유이온주최 캐나다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팀은 남·녀부에 두팀씩 출전, 여자부에서는 두팀 모두 결승에 올라 우승을 휩쓸었으나, 남자부는 6위에 머물렀다. 준준결승에 오른 한국 남자A팀은 일본에 눌려 탈락, 5~8위 결정전에서 2승2패를 기록했다.

23일밤 7시부터 열린 여자단체결승에서 김숙·이계선의 한국여자A팀은, 신현숙·김미정의 B팀을 3-0으로 눌러 이겼다. 이날 하오의 준결승에서 한국여자 A, B팀은 일본 A,B팀을 각각 눌러 결승에 올랐었다.

탁구단체전은 한팀에 2명씩 출전, 단식2게임, 복식1게임으로 진행된다.

이번대회 개인전은 24·25양일간 있으며, 한국은 김숙양이 여자부에 단독 출전, 우승이 기대된다.

한인중앙교회서 성가지휘자 초빙

토론토한인중앙교회(목사 정관일)는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다. 자격은 30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지휘경험 3년이 넘는 음악인.

희망자는 30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502 Bathurst St. Tor.)

내년도 5.8% 인상 고려

TTC요금 어른80¢, 학생45¢

메트로·토론토의 내년도 TTC요금 인상이 당초의 예상보다 절반으로 줄어, 5.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퍼·세비지 TTC총지배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TTC는 최근 주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봉급및 물가 5%인상 억제안을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TTC는 법적으로 이 안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이 이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TTC는 내년도 요금을 11% 인상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를 5.8%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현재 한장에 75센트에서 80센트로 오른다. 또한 8장 $5에서 $4에 6장이 되며, 한달간 사용되는 메트로패스(Metropass)는 $32,50에서 $34,25가 된다.

학생과 노인 요금은 현재 $2,50 8장에서 $2에 6장이 되며, 한장의 경우는 40센트에서 45센트가 된다.

이와같이 인상률이 5.8%로 하락하게 되면 주정부는 TTC에 대한 보조금을 $740만 더 내야 하며, 메트로위원회(Metro Council)도 분담금을 $14만, 또는 28%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세비지 총지배인은 말했다.

교민동정

◆김기철(전 토론토한인회 이사)=서울 국제박람회 관람등 비지네스겸 7, 8년만에 친지방문차 일시귀국, 23일 출발했다.

고향 대구에도 들르고 친척·친지들과 회포도 풀고, 11월말경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이다.

◆구상회(한인민족상위원장·의학박사)=지난 14일 부인 김낙혜 여사(소아과의사)등 가족들과 함께 2주일간 예정으로 고국을 방문하기위해 출국했다.

◆김삼우(선련사 주지)=지난 21일 3명의 캐네디언 불제자들과 함께 한국을 향해 떠났다. 약 3개월간 예정으로 한국의 불교계를 돌아보며 돌아오는 길에 1주일간 일본도 방문할 예정.

김삼우 스님에게는 10여년만의 고국방문이다.

◆서종윤(씨름협회장및 탁구협회 이사)=불루어에서 가게를 경영중인데, 앞으로 모든 체육회 산하단체 임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체육회 일부단체에 약정된 금액을 가정형편상 낼 수 없고,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의료보험금 인상안 불변

1일부터 17%, 「5% 억제」에 예외

주정부의 물가 5% 억제안에도 불구, 온타리오 의료보험(OHIP) 요금이 당초 계획대로 1일부터 17% 인상된다.

프랭크·밀러 재무장관은 23일 주의회에서 의료보험금을 올리기로 이미 지난봄에 결정했고 "가입자들도 이미 새로 조정된 보험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봄에 통과된 예산에서 밀러장관은 보험료를 개인의 경우는 월 $23에서 $27로, 가족의 경우는 $46에서 $54로 인상했다.

이같은 인상이유는 지난봄 주정부가 온타리오의 의사들에게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의사 시술비를 41,1% 올려주기로 계약을 맺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3년도에는 정부의 인플레 억제책에 의거, 모든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급료가 5%밖에 오르지 못하나 의사의 경우는 11%정도 오르게 된다.

주정부는 의사들에게 내년에 인상된 부분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해외협력실 신설

외무부에 두기로

(서울24일=연합)한국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해외협력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외무부 산하에 「해외협력실」을 신설하기도 했다고 고위 정부소식통이 2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모 고위당국자가 현재 해외협력기능이 여러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협력기능을 나누어서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종합적인 기획및 설계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등록재산 공개요구

민권당, "동산도 등록하라"

(서울24일=연합)한국의 야당인 민권당은 24일 최근 민정당 간부들의 재산등록에 언급 "민정당은 동산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킨 부동산의 내용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지난주초 민정당총재인 전두환대통령과 당간부 189명은 새로운 공직자 윤리강령이 실시되기에 앞서, 소유부동산을 당비서실에 등록했다.

민권당대변인은 민정당이 동산은 빼놓고 부동산만 등록하고, 등록된 부동산의 내용을 공개시키지 않은 것은 재산등록의 본래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공직자 윤리강령이 실시되면 고위관리들은 모든 개인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박람회 개막

40개국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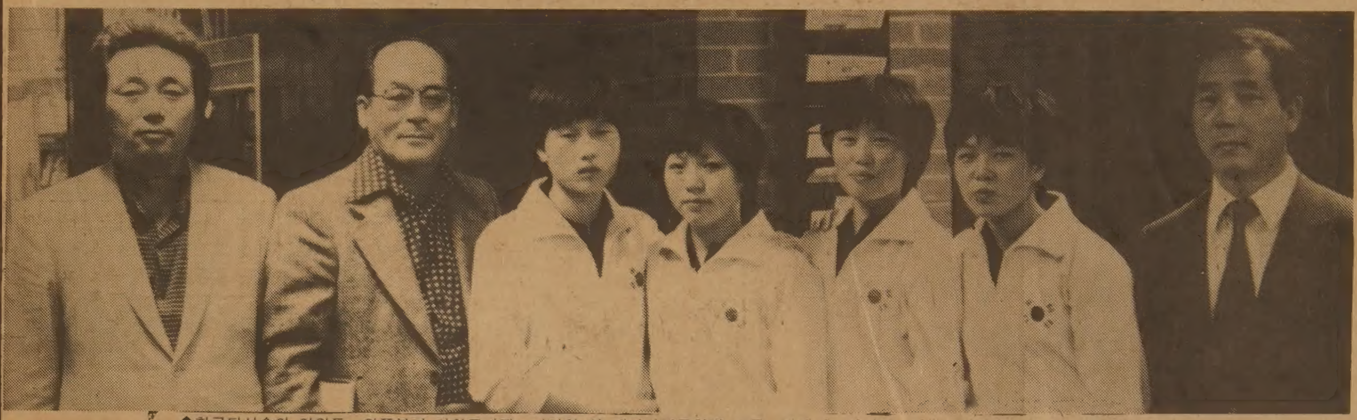
(서울24일=연합)82년도 서울국제박람회(SITRA)가 캐나다등 40개국의 262개 외국회사를 포함, 총 938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24일 한국전시센타(KOEX)에서 개막됐다.

오는 18일까지 25일간 계속될 박람회 기간중 1만명가량의 외국수입업자들이 몰려올 것으로 주최측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측은 보고 있다.

참가국중 12개국가는 박람회 기간중 특정날자를 잡아 내쇼날·데이(national day)를 설정, 자기나라 소개필림상영과 민속공연등 갖가지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내쇼날·데이 행사는 24일 스웨덴으로부터 시작되며 캐나다의 내쇼날·데이 행사는 10월7일로 정해졌다.

캐나다에서는 250여명의 무역업자가 참가했다.



◆한국팀선수와 임원들. 왼쪽부터 안창근단장, 이영환 현 캐나다탁구협회 고문, 이계선, 김미정, 김숙, 신현숙선수, 총감독 백민기씨. (23일 이토비콕·올림피엄에서)

〈시〉

일 기 초(抄)

소심·길 미 자

「RIVER 129」다리
담쟁이꽃이 넋 잃고 피었다。

물오리 한쌍 헤적이는데
맑은 공기 상쾌한 바람이여,
"Are your name ?"이라고 물었을 때
"I dont no, something Like."
영어로 말할 줄 모르는 나에게
날 반기는 이들의 "작은 미소" 라고
꽃은 대답했다。

건강이 부귀보다 아쉬운 지금
길섶 한 모퉁이에 반듯한 품성
나 홀로 거닐으는 산책로에
산협 고향을 뿌리는
구절초 닮은 풀꽃향기여。

돌멩이로 자갈을 메우듯
두 무릎 포개어
베개로 지둘러 자갈을 물린다。

×

남들이,
의사선생은 많은 날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잊고,
예수를 잊고,
일상의 벗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날들이 되라고,

남들은 모두를 가지면서
나더러, 이 모두를 박탈한 나를
예수님을 더 많이 잊고 살라는 날。

나는 사형선고를
암보다 지독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날들을 살고 있다。

창은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비가 오는데
물소리만 맑고
그 속으로 그려지는 산채 하나。
지난 날들
남은 삶의 편린들이
돌돌 소리로 개울이
흐른다。

필자: 한국시조작가협회원
저서 다수.

가을철 대세일

물오징어
1BOX(大)
$ 23.95

장미쌀
50 LB.
$ 13.95

D.Y.가주미
50 LB.
$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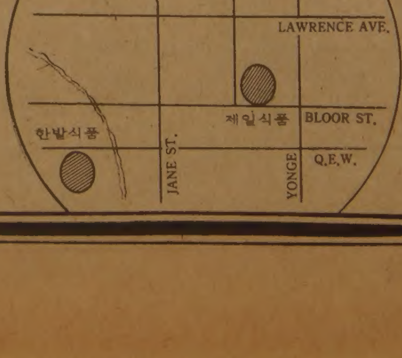
햇조기
1 BOX
中 $ 52.50
大 $ 49.95

※김장철을 맞아 모든 물건이준비되었사오니 한번 들려 주십시요.

◎국보쌀과 다름없이 품질과 맛에서 단연 우수합니다.

◎국보쌀은 앞으로 약1달간 나오지 않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제일식품 712 BLOOR ST. W. 532—1054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미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는 L.A.한인들의 퍼레이드가 18일 L.A.올림픽가를 누볐다. 9만 미국인파들이 한국의 풍속에 감탄을 말했고, 재미교포들에게는 따뜻한 동포애를 불러 일으켰다.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

「코리언·퍼레이드」 갈채

(LA지사)화창한 9월의 하늘은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과 마칭밴드팀들의 경쾌한 연주와 함께 더욱 높아 보였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온 부산의 계성여상고적대의 발랄한 취주악연주행렬은 재미교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불러 일으켰다.

미주한인컴뮤니티 최대 축제인 LA코리언퍼레이드가 19일 하오3시부터 장장 2시간30분동안 화려한 민속제전과 장엄한 축하행렬로 코리아타운 올림픽가를 누볐다. 이날 연도에는 약9만의 인파가 몰렸다.

한미수교1백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제9회 코리언·퍼레이드는 코리아타운번영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LA지사가 주관했으며 LA시와 자매관계인 부산의 최종호시장이 그랜드·마샬로 선정되어 대행렬을 이끌었다.

「한국의 날」행사중 최대 하이라이트인 이번 코리언 퍼레이드에는 약3백명의 교포청소년들과 교포국악인들이 향토색이 물씬 풍겨주는 우리고유의 민속놀이인 「농악놀이」「길쌈놀이」「강강수월래」「부채춤」 「바라춤」 「탈춤」등으로 코리아타운을 짙은 향토색으로 수놓았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특별히 부산시에서 참가한 3대의 꽃차와 모국기업체인 한국도자기, 태화고무, 삼화식품, 진로소주, 동아제약등에서도 꽃차를 참가시켜 화려함을 더했다.

총24대의 아름다운 꽃차들은 저마다 한국적인 풍물과 금년 퍼레이드의 주제인 「한미우호정신」특성을 살렸는데 김방아간의 꽃차는 「독립문」과 「남대문」의 모형을 제작해 교포들의 향수심을 달래주었다.

인간문화재 164호인 이인호씨가 「별신제」를 올리는 관음사의 꽃차는 한국토속신앙을 보여주었으며, 도산체육관소속 2백여명의 태권도시범은 연도교포들과 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이철수사진을 피켓으로 들고나온 LA이철수후원회와 11월선거를 위한 한인유권자등록추진위원회의 캠페인행렬도 이채로 왔다.

제9회 퍼레이드에는 총3천6백92명의 기록적인 인원이 참가했는데 미국사회에서 참가한 드릴팀, 마칭밴드팀, 드럼팀들과 기마수들, 묘기팀들도 각기 율동미를 보여 찬사를 받았다.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점
2437 FINCH AVE. W. WILLOWDALE
☎743-8270
Finch av. GAS Parking Zetzel Weston rd.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5>

어떤 殺人 ㉒

마침내 毒殺된 毛世… 시체처리로 고민

칼에 찔린 동관이 피에젖어 있었다. 그러나 칼을 뽑지않은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피가 많이 흐르지는않았다.

오누이는 얼어붙은 모습으로 한동안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것처럼 보였다.

『죽었어.』

두봉이 먼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자는 바보같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죽었어.』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매우 이상한 말로 들렸다. 그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는 마침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고, 눈빛마저 이상했다. 얼굴근육이 끊임없이 떨리고있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떡 해?』

『오빠…』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사람을 죽이고 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뚜렷한 형체로서 부각되지가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려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려 들여다보았다.

『내…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미 끝난 일이야.』

그는 넋이 나간채 중얼거렸다.

朴男 그림

문자는 오빠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었다.

『오빠, 무서워요. 전 정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마취제를 탄다는것이 독약을 탔나봐요.』

『지금 그런게 문제가 아니야. 저 놈은 죽었어. 시체를 치우지 않으면 안돼. 잔인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알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주만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곤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시체를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시체는 엄청나게 커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몸집이 컸는데 죽고보니 더욱 커진것 같았다.

『밤도 아닌 이 대낮에 저걸 어떻게 운반한다?』

차도 없었고, 그렇다고 택시를 이용할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공포에 휩싸여갔다.

『누가 오기전에 빨리 치우지 않으면 안돼요.』

그녀는 시체 주위를 맴돌았다. 등에 칼이 꽂힌채 엎어져있는 모세의모습은 너무나 끔찍해 보였다.

벽시계가 열두 점을 쳤다.

『벌써 열 두시예요.』

『시체만 안전하게 치울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는데….』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토 : 오전11시～오후3시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三國志 467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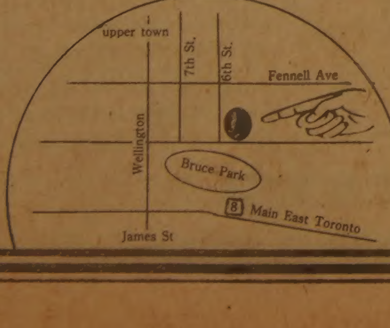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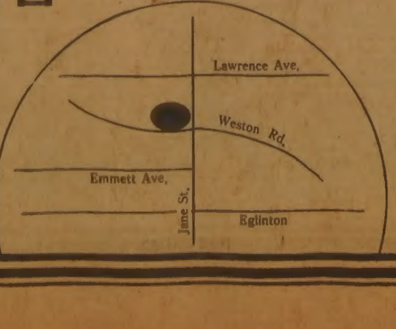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A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단풍놀이 가이드

온타리오의 가을전경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준 가장 아름다운 풍경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기상당국은 82년 한해의 온타리오주기상을 예보하면서 겨울은 지독히 춥고 봄은 불쾌한 날씨가 많을 것이며 여름은 그저 그렇겠으나 가을날씨는 훌륭해 온타리오의 명물인 단풍놀이에 인상이 없을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온타리오의 단풍놀이는 전세계인과 함께 나누어야할 자연의 아름다움의 극치로 전세계에서 온타리오의 단풍을 능가할지역은 파히 없다고도 할수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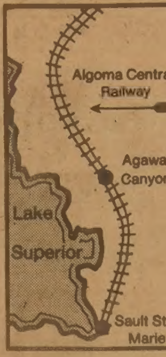
한가지 유의할것은 어느곳을 가던지 먼저 온타리오주관광안내소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는것이 필요하며 하루여행이 아닐경우는 사전에 숙박예약을 해 두는것이 편리하다.

(1)아가와·케년(Agawa Canyon)

수·세·마리에서 북쪽으로 114마일 에 위치한 아가와·케년은 9월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하기 시작하며 철로외에는 그곳에 도착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북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 1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아가와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10월11일까지 매일 오전8시에 수·세·마리기차역에서 출발하는 알고마중앙철도(Algoma Central Railway)유람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가와·케년에 가까워지면 이 열차는 1,600피터의 고지를 올라가 다시 500피터를 내려와 케년바닥에 닿는다. 이곳에 들어서면 밀림속에 조그만한 자연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케년사방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나이아가라폭포보다 높은 2개의 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케년의 한쪽끝에 전망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3백개의 계단을 따라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케년에는 또한 2개의 오솔길이 있어 이길을 따라 2시간가량 걷노라면 사진에 담지않을수 없는 절경들이 여기 저기에 나타난다.

이 유람열차는 오후5시에 수역에 돌아오며 왕복요금은 성인의 경우 $24이며 아이들이나 고등학교학생은 반액이다. 예약도 가능하므로 표가 매진되기전에 빨리가서 표를 구입해 두는것이 좋다. 토론토에서 수·세·마리역까지는 696킬로미터(435마일)의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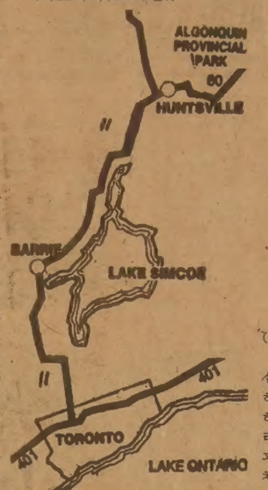
(2) 알공퀸·파크(Algonquin Park)

남온타리오에서 가장 단풍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은 알공퀸·파크로 주위에 있는 무스코카(Muskoka)와 헬리버톤(Haliburton)보다 단풍이 빨리 드는 이유는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공원관리인들에 의하면 이곳의 단풍은 9월3주째부터 이미 절정에 달해 있다.

2,910평방마일이나 되는 주립공원인 알공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수있는 곳이기도 하다.

토론토에서 알공퀸·파에 이르는 길은 하이웨이400과 11로 헌츠빌(Huntsville)까지 북상, 다시 하이웨이 60을 타고가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한다.

돌아오는길도 마찬가지이나 공원 남단으로 가서 하이웨이35를 타고 Dorset과 Minden을 거쳐 하이웨이401로 접어들어 올수도 있다. 토론토에서 왕복거리는 480키로미터(300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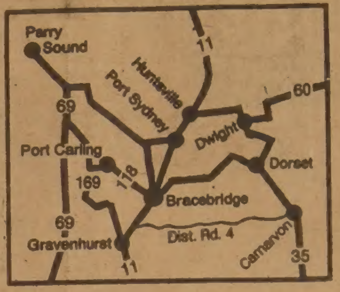
(3) 무스코가(Muskoka)

10월 첫주경에 절정을 이룰 무스카스 단풍은 남온타리오에서 단풍놀이로 최적의 장소라는 평을 받는다.

이곳은 온타리오주에서 숙박시설이 가장 많으며 숙박료도 바캉스시즌이 지나 하락하고 있으나 골프대회와 소규모집회가 이곳에서 빈번히 열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해 주는것이 안전하다.

이곳에 가려면 하이웨이400과 11을 타고 Bracebridge까지 가서 다시 Port Carling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하이웨이69로 Parry Sound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길은 하이웨이69를 따라 Hayes Corners를 거쳐 다시 141을 타고 Port Sydney로 동진, 여기서 11을 따라 Huntsville까지 다시 북상한다. 다시 하이웨이60으로 알곤퀸을 거쳐 Dwight로 나온다. 여기서 3길중 하나를 택할수 있다. 즉 60을 따라 마다와스카·밸리를 구경하거나(하루가 소요됨), 35를 타고 Minden으로 갈수 있다.



(4) 파리·사운드(Parry Sound)

파리·사운드타운 한 중심가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도록 개조된 소방탑이 하나 서 있는데 이곳에 올라가보면 조지안만해안선과 3만여개의 작은섬에 펼쳐진 불타는 단풍이 한눈에 들어온다.

파리·사운드의 관광은 물론 무스코카관광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파리·사운드는 토론토에서 하이웨이400과 69를 따라 235키로미터(147마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소방탑에서 본 풍경들을 근접해서 보려면 Island Queen의 각섬을 매일 운항하는 배를 타면 된다. 이배는 오후2시에 출발하고 3시간 운항하며 요금은 어른 $8이며 어린이는 반액이다

(5) 헬리버튼 고원(Haliburton highlands)

이 지역은 주홍색과 금색, 가나라스카(Ganaraska)숲의 길은 자주색과 붉은색조화가 유명하다.

Minden과 헬리버텐을 중심한 고원지대는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절정을 이룬다.

이곳처럼 하이웨이 바로 옆에 호수, 강, 폭포를 두루갖춘 여행길도 없다.가는 길은 401동쪽에서 하이웨이35와 115를 만나 북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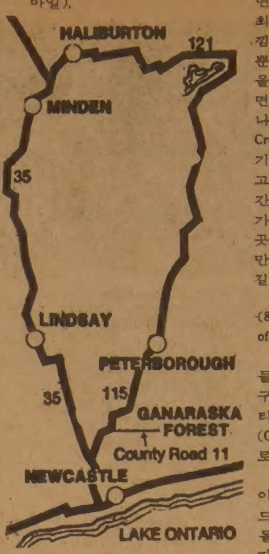
가나라스카숲을 보려면 2마일 거리에 있는 Durham County Road11을 찾을것.

이길을 따라 1마일쯤가면 표지가 있다.

팍의 최고봉에 있는 소방망루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Rice Lake, 남쪽으로는 온타리오호수가 보인다.

헬리버턴은 하이웨이115를 타고 Peter Borough까지가서 다시 28로 121까지 올라간다. 헬리버턴 반마일 못미쳐 있는 Skyline Park 또한 장관이다.

하이웨이 35와 401을 타고 돌아오는 거리까지 합치면 왕복 480키로미터(300마일).



(6) 알려지지 않은 도로(Unknown road)

단풍놀이가 무스코카와 헬리버톤에 절정을 이루고 있을때 관광객들의 혼잡을 피해 조용한 곳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곳이 있다.

그곳은 Gravenhurst에서 북쪽으로 7마일 위치에 있으며 하이웨이11과 만나는 District Road 4이다. 그러나 District Road 4는 그곳 주민들에게는 옛날 이름인 반코넷(Vankoughnet)도로로 알려져 있다.

이 도로는 동쪽으로 카나본(Carnarvon)과 하이웨이35에서 만나게 된다.

(7) 하클리·밸리(Hockley Valley)

이곳은 단풍나무로 덮힌 스키·힐이 장관이겠지만 더욱 구경거리는 융단같이 깔린 작은 옻나무숲이다.

하이웨이 50을 따라 Bolton과 Palgrave를 거쳐 Loretto까지 간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바로 하클리·밸리. 북쪽으로 난 작은길을 차로 한바퀴뛰돌고 나면 아마 남부 온타리오주 최고의 단풍놀이를 본 느낌이 들것이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하이웨이 10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Orangeville, Caledon을 지나 오른편으로 Forks of Credit 입구가 나타난다. 여기 도착하면 차를 주차하고 강가로 내려간다. 반시간에 걸쳐보고 냄새맡는 가을의 영광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한계절이나 걸릴만 한 것이다. 왕복 120마일 길.

(8) 폭스·오브·크레딧(Forks of Credit)

이 지역은 토론토 거주자들이 아름다운 가을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CPR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오렌지빌(Orangeville)까지 여행함으로써 유명하게 되었다.

지금은 기차는 없어, 하이웨이 10을 타고 북쪽으로 드라이브하다가 서쪽으로 돌려 Forks of Credit 도로를 따라가면 이곳에 도착. Caledon마을 바로 남쪽에 위치.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단풍이 다소 빨라, 10월첫주가 가장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글렌·해피(Glen Haffy)

토론토에서 가장 짧고 쉬운 여행길은 다운타운에서 40마일 거리에 있는 글렌·해피 콘저베이션·파크에 가는 것.

Dixon Rd. 의 연장인 Airport Rd.를 따라 북상, Malton와 Caledon East를 지나간다. 해피공원은 바로 Mono Mills 남쪽, Airport Rd.동쪽에 있다.

안에 있는 넓은 파킹장은 여름에는 낚시꾼들의 자동차로 꽉자나 연못은 포기하고 공원의 동쪽끝에 있는 돌담까지 걸어갈것. 그러면 갑자기 낭떨어지가 되면서 100평방 마일이라는 넓은 지역이 단풍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에 넋을 잃을 것이다.

글렌·해피바로 남쪽에 있는 신호등에서 서쪽으로 가면 Caledon Village,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꺾어 내려오면 또 하나의 구경꺼리인 Forks of Credit을 볼 수 있다.

(10) 가나라스카(Ganaraska)

토론토에서 차로 동쪽으로 한시간 가량 달리면 가나라스카 숲이 나오는데, 이곳은 나무잎이 여러색으로 단풍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숲속에는 소방탑이 높이 세워져 있으며, 탑에 올라가면 Rice Lake와 Lake Ontario가 시계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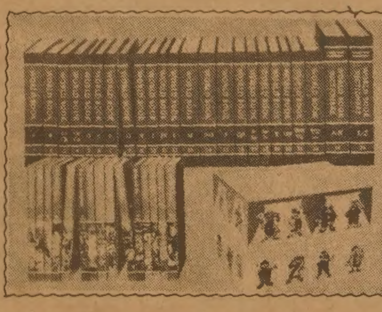
가나라스카에 가려면 하이웨이 401을 타로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하이웨이 35와 115를 타고 북쪽으로 향한다. Kirby에서 다시 동쪽으로 꺾어 County Road 9을 타고 Kendal까지 가면 가나라스카숲 중심부로 들어가는 표시판을 만나게 된다.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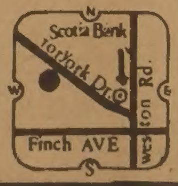
● 시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대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단풍이우리를부릅니다

☆매주 당일관광
(알공킨 단풍코스 포함)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월	30,000 ISLANDS	9 : 00	20 : 00	코라메	$59
화	알공킨 (입장료포함)	8 : 30	20 : 00	코라메	$56
수	나이아가라	10 : 00	19 : 00	코라메	$55
목	1,000 Islands	9 : 00	20 : 00	코라메	$59
	알공킨 (입장료포함)	8 : 30	20 : 00	코라메	$56
토	나이아 가라	10 : 00	19 : 00	코라메	$55

⊙비고 :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 점심 BOAT · 유람비용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일정및 요금은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 환영합니다

코라메관광(주)
649A BLOOR ST. W.
☎: 535－0853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 · 고등 · 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교회약도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전에있는 푸레밍돈 · 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자원적고 國土도 작은데… 스위스는 잘산다

海外경제

◇사진은 스위스 최대중공업회사의하나인 술처·브러더즈의 디젤엔진제작공장내부광경。 우리나라의 한국중공업 昌原공장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국내 소요 원자재전량및 에너지총소요량의 80%수입, 국내 생산제품의 80%수출」 스위스경제를 들여다 볼수있는 가장 설명적인 지표라고 할수있다。

광물자원이라고는 소금이외에는 아무것도없고 오직 산과 호수뿐인 자원빈국 스위스。 그런데도 스위스국민들은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아 81년말 현재 1인당 GNP가 1만3천4백달러나된다。남한의 절반크기인 4만1천평방㎞의 좁은 국토와 서울의 인구보다 적은 6백30만의 도시국가 규모이면서도 그들이 잘 살고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大統領도 자전거 出退勤…長官은 비서안둬

대통령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있고 7명의 장관(이들 장관이 1년씩 대통령직을 번갈아 수행한다)이 인건비절약을 위해 비서조차 두지않는 나라。 모든국민은 철저하게 절약정신이 몸에배있고 부지런하다。 기자가 처음만난 對外經濟省의 극동및 동남아담당 막스·크렐씨도 예외는아니어서 1시간남짓 대화를나누는동안 코피는물론 엽차한잔도 권하지않았다。

"품질高級化로 市場지켜"

막스·크렐씨는 처음대하자 기다렸다는듯이 정부의 공식자료를 내보이면서 대뜸『한국상사들은 왜 스위스에 상품수출을 하려고노력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모든 상품수입을 완전개방하고 있는 스위스로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을위해 섬유류 이외에는 모든 상품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고있는데도 한국상사들이 절대량이 많지 않다고해서 對스위스 수출에 적극성을 보이지않고있다는 것이다。

EC(유럽공동체)국들 선진국들이 자국산업보호장벽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추세와 관련, 스위스정부도 관세장벽을 높일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막스·크렐씨는 펄쩍 뛰면서 『스위스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나라』임을 몇번이나 강조했다。

이같은 크렐씨의 주장은 로잔박람회에 갔을때 직접 느낄수 있었다。

국내상품을 선전할수있는 좋은기회인데도 당초 참가키로한 국내 18개상사가 12개상사로 줄었을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회사로서는 韓國등 몇개사에 불과했다。 전시품들도 사진위주여서 『한국의날』(9월13일)을 정해 화려한 전통의상들임은 기수들을 앞세운 악대의 퍼레이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귀국도상의 기내에서만난 어느조그만 수출상사직원도 한국상사들이 외국바이어의 소량주문에는 응하지 않는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면서 台灣의경우 양말10켤레 주문에도 응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하면 누구나 시계를 연상한다。 정밀공업을 바탕으로한 스위스의 시계공업이 스위스의 富축적에 바탕이 되었고 앞으로도그럴것이다。

그러나 실상 지난해의총수출액 5백28억 스위스프랑(미화약2백70억달러)중 시계수출액 비중은 7·4%에 불과하다。 기계류·잡비류·운송수단·금속류수출이 전체의43·8%, 화학제품 20·1%였고 섬유·의류7·1%, 식품류를 3·1%, 기타 18·5%를 차지하고있다。

서울의지하철1호선각역과 金浦국제공항에 1백여만달러상당의 세시움 전자시계를 기증했고 내년말까지 지하철2호선각역에 1천여개의 대형시계를 무료로 설치할계획이라는 라도시계회사는 지난해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스위스 시계회사로서는 비교적 후발업체에 속한다。

"한국商社는 왜 스위스市場 접근안하나"

라도시계회사의판매책임자 짐머만씨는 세계시계시장에서의 일본제품 잠식에 대해 자신만만했다。

짐머만씨는 지난해의 경우 세계시계메이커가 생산한 시계수는 3억4천만개였고 이중 5%인 약7백만정도만 2백50달러 이상나가는 고가품이라고 지적하면서 라도는 이 5%의 고급품 생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도의 경우 연간 총판매액의 10%를 기술연구비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짐머만씨는 시계의 나라인 스위스내에 일본제품이 자유롭게 수입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방수·방충에 이어 방흠(흠허도 흠집이 나지않는 특수금속)기술을 개발, 시계의 고급화로 세계시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최대의 선박용 디젤엔진과 최신의 방직기계등을 생산해내고 있는 술처·브러더스회사나 정확한 비행시간과 철저한 서비로유명한 스위스항공사, 1백50년의 전통을 가진 론진시계회사등을 둘러보면서 합리주의와 과학정신,근면성과 직업정신이 오늘날의 스위스富를 이루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했다。

[편집자주] 본사 경제부 金基昊기자(차장대우)는 스위스 정부기관인 무역개발공사초청으로 9월6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의 각 산업시설을 돌아보고 지난 20일、귀사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이」서「虐殺」主導"

英BBC 팔랑헤民兵隊에 作戰위임

[런던21日UPI聯合=特約] 이스라엘軍방송은 이스라엘이 지난16일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에 대한 숙청작전을 수행키위해 極右팔랑헤 기독교민병대를 수용소에 투입할것을 결정한것으로 보도했다고 21일 영국의 BBC방송이 전했다。

BBC방송은 이같은 이스라엘軍방송을 지난17일 청취했으나 보도하지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BBC에의하면 이스라엘軍방송은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던것으로 전해진 지난16일 자정 『이스라엘軍은 이번숙청작전의 수행임무를 팔랑헤민병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스라엘고위관리들은 베긴이스라엘수상이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학살사건이 자행된 샤틸라와사브라 두난민수용소에 대해 잔류 PLO대원과 무기수색작업을 벌이겠다는 팔랑헤측의 제의를 수락했으며 이같은 숙청계획은 베시르·게마옐레바논대통령당선자가 암살되기전에 이미 짜여져 있었다고전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포스트紙는 21일 베이루트 학살이 이스라엘軍의 허락을 받은 4백명의 레바논민병대에 의해 자행됐다고보도했다。

[워싱턴UPI=聯合] 미국무성은 지난16일 2개 팔레스타인난민촌에 레바논 민병대원들이 진입했다는 통고를 받았으나 별일이 없을것이라는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한 당국자가 21일 말했다。

이、"26일까지 撤軍완료"

西베이루트서 美平和軍、어제 나폴리 出發… 레바논으로

[텔아비브AP=聯合特約] 이스라엘군은 오는26일까지 서베이루트에서의 철수를 완료할것이라고 이스라엘 국영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레바논군과의 협정에따라 베이루트를 5개구역으로나누어 하루에 1구역씩 철수를진행시켜 오는 26일까지 철수를 끝낼 예정이라고전했다。

[워싱턴·런던外電UPI=聯合]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이후 레바논의 치안유지를 돕게될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여할 1천8백명의 미해병분견대가 22일상오 7시10분(한국시간) 이탈리아의 나폴리항을 출발,베이루트로 떠났다고 미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 全斗煥대통령이 민방위대 창설7주년기념식에 참석, 有功 민방위대원들을 표창하고 악수를 나누고있다。

"有事時 一絲不亂대처"

全대통령、民防衛隊창설7돌 기념식 諭示

全斗煥대통령은 22일 民防衛隊는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의 기간조직으로서 선도적역할과 사회안정、경제성장의 堡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수행해 나가는 한편 자연재난과 산업재해에 대처、사전예방과 사태수습의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방위대창설 제7주년기념식에 참석、諭示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야간통금해제、해외여행자유화등 일련의 조치를 逆이용하는 각종 불순분자들의 준동이 예상됨에따라 민방위대원들은 主人의식을갖고 주민신고정신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서서 국가발전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요소도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민방위대는 평상시 교육훈련에 솔선참여하는 기풍을 확립함과 동시에 軍·警·예비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사시에 一絲不亂하게 대처할수있는 동원태세를 완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후방방위는 물론 災難극복의 求心的조직으로 성장발전할때 민방위대는 국민을위하고 국민을 지키는 역군으로서 온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국제정세의 不確實性、세계경제의 위기상황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세하에서 北韓공산집단은 武力에의한 赤化통일을 계속 획책함으로써 東아시아의 긴장상태를 더욱 부채질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北韓공산집단의 「反평화」·「反통일」태도가 굳으면 굳을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자세로 이에대처해 나가면서 국력신장과 조국통일을 성취하기위한 국민적결의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前코스타리카 大統領을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제1회「세계평화의날」기념學術대회에 참석하기위해 來韓한 로드리고·카라소·오디오 前코스타리카대통령을 접견한뒤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趙永植慶熙학원이사장이 배석했다。

새마을誠金 기탁 7명에 親書격려

全斗煥대통령은 22일 새마을誠金을 기탁해온 7명의기업인들에게 親書를보내 격려했다。

새마을성금을 기탁해온 기업인들은 다음과같다。

▲現代건설 李明博사장=5억원▲韓一合纖 金重源사장=4억원▲韓國야쿠르트유업 尹快炳사장=5천만원▲東洋정밀공업 朴律善회장=″▲正友개발 閔爽源회장=″▲신도리코 禹相琪사장=″▲一洋약품공업 鄭亨植사장=2천만원

中等교원 號俸시정

정부와 民正黨은 내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12만6천여명의 전국初等教員의 처우를 改善하고 이에필요한 제1차연도 소요예산 2백41억원을 이번 국회에서 예산에 計上키로했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22일 『同一학력간에 평균3호봉의 격차가 있는 初·中等교원간의 불합리한 號俸制를오는 85년까지 手當형식이아닌 봉급의 현태로 완전해소한다는 계획아래 2백41억원을 내년예산에 확보할방침』이라고 밝히고 『12만6천여명의 초등교원은 1인당평균 8천5백원의 봉급인상과 함께 상액에준하는 年4백%의 期末수당、2백%의 정근수당등을 추가지급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이밖에 초중등전체교원에게 지급되는 教職수당은 현재의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를위한 3백79억원의 예산을확보했다』고 전하고 『특히 교원의 雜務부담을덜어주기 위해 금년부터 도입한 고용원의宿直전담제도를 확대 실시하기위해 59억원을 확보、모두2천4백20개교에 숙직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겠다』고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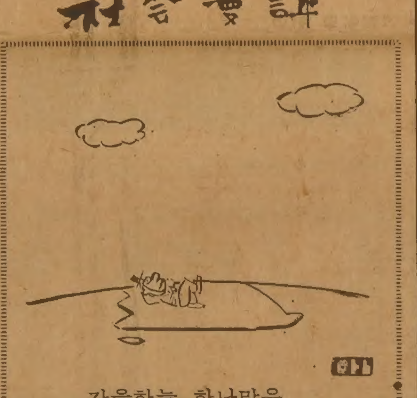
議員外交청취 國會본회의

국회본회의는 22일하오 의원外交활동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23일에도 本會議를 속개、의원외교활동에 관한 보고를 들은뒤 24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를 休會하고 13개常委를 일제히 열어 政治·經濟등 계류의안과 請願등을 심의한다。

韓日의원 연맹의 李相翊간사장은 이날 보고에서『聯盟내 日本교과서 왜곡시정 대책特委는 9월말 東京에서 제1차 양국 합동회의를 갖는데 이어 11월중순 서울에서 2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가을하늘 하나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反베긴」운동 加熱

虐殺공식調査 거부 執權黨서도 內紛

[예루살렘AP=聯合]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으로 이스라엘에 격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메나헴·베긴수상이 이끄는 이스라엘정부가 21일 이츠하크·나본대통령과 야당및 언론의 이사건에 대한 공식조사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집권리쿠드당내에도 반베긴운동이 거세게 일고있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베긴수상의 주재로 각의를 소집,5시간반에 걸친 논란끝에 난민학살의 진상을 밝히기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리쿠드당연립정부에 참여하고있는 진보·종교정당등 제휴세력도 이에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소수정당인 신누이黨은 제1야당인 노동당과 리쿠드당 이탈세력으로 구성된 구국연립정당을 결성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반발은 이츠하크·베르만에너지相과 요셉·부르그 종교상등 일부각료들마저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베긴정부는 안팎으로 적을맞은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리고있다。

특히 정치에 초연했던 나본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난민학살사건의 공정한 조사를요구하고 나섰으나 이 요구마저 거부된 것은 국민의 여론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나본대통령과 출신이 같은 스페인 포르투갈系국민들의 반베긴감정이 고조되고있다。

유엔총회 開幕

[유엔本部=金泰植특파원] 「평화의 날」로 정한 유엔은 21일하오3시15분 예정대로 37차유엔총회의 막을 열었다。

레바논의 비극때문인지 총회장의 분위기는 예년과같은 축제분위기는 볼수 없었으며 희망보다는 실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총회는 제1안건인 의장선거에 들어가 약속한대로 헝가리 외무차관 임레·홀라이를 만장일치로 임기1년의37번째 유엔총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요르단江西岸 시위鎭壓—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난민 대학살에항의하는 팔레스타인人들의 시위를 진압키 위해 요르단江西岸의 나블루스에 이스라엘軍·警이 투입된후 한 팔레스타인人母子가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나블루스(요르단江西岸) AP特約=聯合】

地平線

알렉산더大王은 재판을할때 원고가 진술을하면 언제나 왼쪽귀를 손가락으로 막았다 한다。누군가가 그이유를 물어본즉 오른쪽귀는 고소내용을 듣지만 왼쪽귀는 피고의해명을 듣기위해서 남겨두는것이라고 말하곤 했다。현대에와서는 재판때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진 피고라도 변호사를 댈수있고 3審제도까지있어 신중을기하지만 사람의 죄를 판가름하기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모양이다。▼엄청나게 나쁜범인도 처음에는 범행을 딱 잡아떼며 부인하게 마련이고、또 아무리 죄가없는 사람이라도 운이나쁘면 범인으로 몰릴때가있는 것이다。요즘인기절정인 TV 영화 「콜롬보」만 하더라도 마지막장면까지 범인이 죄상을 감추면서 태연히 부인하는바람에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끝날것처럼 보일때가 많다。하나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이다가도 증거―물증을 차곡차곡 찾아내는 수법이 결국은 사건수사를 매듭짓고만다。이 재미에 콜롬보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모른다。▼심증이가도 물증없이는 무턱대고 검거하지 않는것이 수사의 ABC이다。외국 영화아닌 국내TV의 「수사반장」이나 「형사」도 언제나 과학적인 증거수사로 범인을검거하게끔 돼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증거」라는것이 알쏭달쏭해서 말썽을 낳는다。엊그제 치안본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고문으로 殺人누명을 씌운 경찰관 5명을 파면했다。허위자백을 강요당한 金모씨는 억울하게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 진범이 검거되고 대법원에서「強壓에의한 自述書는 證據능력이없다」는 판결로 풀려나왔다。▼치안본부서는 증거수집후에 연행한다는것을 원칙으로하라는 시달을 긴급지시했고、검찰에서는 물증수사를 꼭할것과 자백편중수사의 탈피로 시민의신뢰를 회복토록당부하였다。尹景花여인、朴尙恩양피살사건에서도 자백이 문제였던 만큼 물증수사에 더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할것은 물론이다。指紋、足跡、遺留品등 犯罪감식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경험이 뒤따라야하며 走査電子顯微鏡、高性能分析機器、指紋自動識別시스팀의 개발따위、서둘러야할것이 많다。▼그런터에 우리경찰이 증거우선주의수사로 전환한것은 뜻과함께 노고또한 크게따르리라고보여 격려를 보내고싶다。프랑스 속담에 소송을 스루번해서이기면 거덜이난다는말이 있다。소송이 얼마나 귀찮은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수사의 애로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알렉산더의 故事처럼 양쪽귀로 공평하게 사물을 판단하는 습성이 아쉽다하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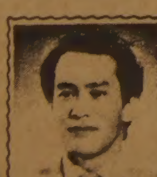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배 준 성
(R) (416)633 · 7892　(David Chae)

UNPAINTED
FURNITURE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DRESSER $88.00
NIGHT TABLE $29.95
36" x 72" $98.00
BOOKCASE 36" x 36" $29.95
DESK $69.95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 믿을수 없는 가격

★페인트 칠없는 나무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 레스토랑 · 사무실등에 각종비품 대량공급.

한번들려주세요.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全세계에 번지는「反이」물결

"「人命존엄성」 설곳을 잃었다"

"良心의 苛責도 없느냐"

◇「베긴 火刑式」 약2백명의 親팔레스타인및 레바논시위군중이 20일 팔레스타인난민 대학살과관련, 오타와의 캐나다의사당에서부터 2백m가량 가두시위를벌인뒤 이스라엘대사관앞에서 베긴이스라엘수상의 허수아비 화형식을 갖고있다. 【오타와21日AP電송=聯合】

美·佛·中共등 곳곳서 규탄데모

유태인들도 침묵행진

유태인 출신의 브루노·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수상은 최근 이스라엘에 거주하고있는유태인들은 민주주의안에서 살아본적이 없고、베긴이스라엘수상과 샤론국방상의 親파시즘정책에 전적인 공감을 갖고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크라이스키수상의 이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난민촌학살사건으로 절정에다다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보여준 윤리관의 마비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잘설명하고있다。

난민촌학살사건은 그 잔혹성과 비윤리성으로해서 세계여론을 들끓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면 또는 배후에서 만행을 주도한 이스라엘에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세계각지로부터 분노한 양심의목소리들을 모아본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일본의 요미우리(讀賣)、마이니찌(每日)등 세계 각지의 유수한 신문들은 21일 사설을 통해 레바논의 팔레스타인난민 대학살사건을 일제히 규탄했다。각지의 사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뉴욕·타임즈(美)=지난주말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야만적인 잔혹행위와 비숫한 사건이레바논에서 일어난 선례는 찾아볼수있다。그러나 팔레스타인 주민의 대량학살을 방임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유례를 찾아볼수없다。이번과 같은 공포의 사건앞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대변할수 있을것인가?

베긴수상의 이스라엘정부는 충격적인 뉴스와 참혹한 사진들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인도주의의 기본적인 시험에마저 실패했다。이스라엘정부는 양심의 가책대신에 지나간일로 잃은 슬픔과 유감을 표했을 뿐이며 이스라엘軍의 역할에 대한 의심대신에 수치심없는 자기변호에 급급하면서『아무도 우리에게 윤리나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설교할수없다」고 말했다。

▲더타임즈(英)=샤틸라、사브라 두난민수용소에서 벌어진 사건에대한 이스라엘군의 책임유무에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으며 또 있을것이다。그러나 이스라엘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국내의 모든 사람들의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가디언(英)=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 군참모총장등은 이번사건과 관련하여물러날만한 인물은 아니다。그러나 그들이 유임하는한 그들이 가져온 무분별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스라엘국민전체가 이같은 무분별한 상황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요미우리(日)=레바논대통령당선자 바시르·게마엘이 암살당한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이스라엘은 학살과같은 비극을 막기위해 西베이루트에 군대를 진입시켰다고 주장한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사건을 방지하지못한 책임을 사과해야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내를 비롯 프랑스 미국 중동 이탈리아등 세계전역에서는 21일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에 항의、곳곳에서 反이스라엘데모 파업등이 벌어졌으며 특히요르단江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軍과 데모대들이 충돌, 수십명의 아랍人들이 체포되었다。

이날 수천명의 프랑스거주 유태인들은 파리 마르세유, 리모주, 그레노블등 주요도시에서 팔레스타인난민촌 학살만행과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주둔에 항의하는 데모를 벌였으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도 약5백명의 유태인들이 침묵행진을했다。

이탈리아의 3개노조는 이번 사건에 항의、1주동안 모든 이스라엘行 비행기를 보이코트 할것을 촉구했는데 이에따라 북부 레그혼에서는 부두노동자들이 정박중인 이스라엘선박 2척의 하역을 3시간동안 보이코트 했다。

또한 미국 보스턴에서는적어도 1백명의 反이스라엘데모대들이 미국주재 이스라엘영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만세, PLO만세』를 외치며 이스라엘국기를 불태우려했는가하면 디트로이트에서는 팔레스타인 학살극에 항의하는 30명의 反이스라엘데모대가 주요공공건물을 16시간동안 점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밖에 약3백명의 아랍人유학생들이 北京주재 美國·英國·프랑스·소련대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난민 학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랍연맹外相들은 21일 튀니스에서 팔레스타인난민촌 집단학살사건을 논의하기위한 비상회의를 소집、이번사건에『직·간접책임이있는』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렬히 규탄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PLO의 外相격인 파루크·카두미 정치국장은 미국에 이번사건의 책임을 물어 ▲석유금수 ▲외교단절 ▲미국주재 모든 아랍대사의 소환 ▲美은행에 예치된 아랍자금 인출 ▲美회사들과 체결된 모든계약의 취소등을 요구하고 대신 소련및 비동맹국가들과의 정치·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할것을 촉구했다。

○…아랍 에미리트聯合(UAE)의 WAM통신은 西베이루트난민수용소 집단학살만행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人들을 추모하기위해 21일상오9시부터 9시30분현지시간)까지 30분간 뉴스送信을 중단했다。【[illegible]】

税金

—무엇이 문제인가

세금에는 별명도 많다。『문명의 값』이니『필요악』이니 등등。무슨명분으로 단장을해도 세금은 세금이다。돈이 민간의 주머니에서 정부의 주머니로 일방적으로 이전되는것이므로 크건작건마찰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마찰을 극소화하는것이 名稅制요 名稅政이다。여기에는 稅부담의 적정、공평 그리고 稅政의 합리화가요구된다。

이 교과서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租稅의 첨단국인美、英、佛등 선진국도 매년 뜯어고친다。미국의회는 사실 1년내내 세금을 갖고 씨름한다。그래도 미진하다。

우리나라는 租稅에 관한한 아직 前近代的이다。稅制는 주로 日·유럽등의제도를 직수입、외관은 그럴듯하나「주먹稅政」과「脫稅만연」의 고질적인 풍토아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있다。덧붙여 稅收추계방식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전직 재무장관이 재임시 公式석상에서『稅法대로 하면 쓰러질 企業이 不知其數일것』이라고말했다는逸話는우리나라 稅制와 稅政의 비현실과 낙후를 대변하는 것이다。

制度는 이식할수있어도 風土는 이식할수 없는것이다。관계당국과 납세자어느쪽의 잘잘못을 가리는것은 결실없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것이다。양당사자가 협력의 자세로 租稅풍토를 개선해야할 때다。

때마침 豫算국회가 열리고있다。현행 租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우선 정부가 내어놓은 명년도 稅制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는가。오늘의 租稅체계를 살펴본다。(編輯者註)

근로소득자는「납세의모범생」이다。탈세의 구멍이 숭숭나있는 풍토에서 근로소득자는 어김없이 세금을 내놓는다。소득이 훤하게 노출되어있어 감추려해도 숨기기가 어렵다。

稅源포착이 쉽고 또한 거두어들이기가 편리하므로 稅政당국은 근로소득세를 선호한다。따라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다른세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이것이 세계의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商人을 통해 납부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소득세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않다。

直間稅의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이 32대65인데비해 미국은 90대10、일본 71대29、프랑스 40대60이다。

그렇다고 근로소득자들이 미소지을일이 아니다。이는 세금을 얽어매어 놓을수 있는 조세기반이 좁기 때문이다。노동시장과 임금체계가 철저한 男性優位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것이 조세기반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이래서 남성家長의 단일소득자 가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부부맞벌이의 가정이 흔하지 않다。

단일 소득자의 급료를 생계비에는 맞춰주어야 하므로 자연히 임금수준이 다른 경쟁국에비해 높아질수밖에 없다。人件費에 눌려 기업측에서도 올려준다고는 하나 근로자측에서 볼때는 만족스러운 선이 못된다。

임금체계가 性別로 격차가 심화되고 관리직과 노무직등 직종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되어있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임금체계의 후진성으로 소득세의 부담은 소위 중산층을 형성하고있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관리직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워진다。

소득세가 세수의 기여도가 낮으면서도 납세자 특히 근로소득자로서는 세부담이 높은것이 정부의 고민이요 납세자의 불만이다。

근로 소득세

控除제도 合理的확대가 上策

扶養가족「범위·연령」완화해야

모무역업체의 과장급인 A씨의 경우를 보자。入社경력10년의 A씨는 월급 50만원이고 年間보너스가 지급액기준 4백%다。가족은 부인과 3자녀등 모두 5인이고 자녀중1명은 중학생이고 나머지 2명은 국민교생이다。편의상 근로소득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A씨의 올해 총급여는 정규급여 6백만원과 보너스 2백만원등 8백만원이 된다。

이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적인 성격을 띤 ▲근로소득공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등과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각종공제를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종전의 근로소득공제 (연54만원) 와 상여특별공제 (연52만원한도) 를 올해 처음으로 흡수한것인데 1백7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A씨는 총급여액이 8백만원이므로 규정된 산출방식대로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백80만4천원이되나 한도에 묶여 1백70만원에서 끝난다。

다음 ▲보험료 공제 (한도24만원) 는 의료보험만 가입、의료보험료지불액 9만원만 혜택받고 ▲의료비공제는 아이들이 독감등에 걸려 3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공제기준 (연간 총급여액의 5%, 즉40만원) 에 미달하여 혜택을받지 못한다。교육비는 중학생인 큰놈의 수업료 8만원과 국교생2명의 후원회비 1만2천원등 모두 9만2천원전액을 공제 (한도액 24만원) 받는다。

여기에 ▲기초공제 30만원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공제 72만원(1인당 24만원) 을 공제받는다。

이렇게해서 A씨의 소득공제총액은3백32만2천원이된다。따라서 A씨의 과세표준액은 4백67만8천원 (8백만원~3백32만2천원) 이 된다。

이것에다 소정의 稅率을 적용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데 44만6천7백원이된다。여기에 방위세 10% (4만4천6백70원) 와 주민세 7·5% (3만3천5백2원) 를 가산하면 A씨가 납부해야할 총세액은 52만4천8백70원이 된다。세부담률은 6·5%가된다。

명년에는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에따르면 소득세 세율구조가 현재의 17단계에서 14단계로 줄어들고 세율도 6~60%에서 6~50%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A씨의 급료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은 세부담 (방위세와 주민세포함) 이 올해보다 7만2천3백88원이줄어든다。A씨가 올해보다 더 받는 혜택은 근로소득세액공제 5%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공제하므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10%였던것을 한해만에 5%로줄여 부활시켜놓은것이다。명년의 세부담률은 5·6%가된다。올해보다 0·9%가 줄어든것이다。

그러나 명년에는 A씨의 급료가 오를것이므로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A씨는 또한 月급여액이 50만원이므로 다른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경감률이 낮다。정부가 명년에 세율을 크게 깎아내렸다고 PR을하고있지마는 납세인구가 집중되어있는 月급여30만원에서 70만원대사이의 소득자가 세부담감10%미만으로 가장 냉대를받았다。납세인구가 적은 月30만원이하의 低소득층과 月7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에 후의적인 배려를했다。低소득층에대한 배려는합리적이지마는 高소득층에대한 우대는우리나라與件으로보아 설득력이없다。

현행의 각종 소득세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첫째 부양가족의정의다。소득세법 65條에 따르면 부양가족은①근로소득자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이상 (여자는 55세) 인자와②거주자의 직계卑屬으로 20세이하인자③근로소득자와 그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이상 (여자는 55세) 인者또는 20세이하인者로 못박고있다。물론이들 부양자는『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부양가족공제액 (24만원) 이하인 者여야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미국소득세법의 부양가족정의도 까다롭기는 하나 우리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다。

혈연의 유대가 우리보다 엷은것으로 알려져있지만는 그들은 부양가족범위에 삼촌과 숙모、조카와 질녀를 포함하고 있다。특히 주목되는것은 부양가족에연령제한규정이 없는점이다。부양가족범위에 들면 부양사실여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고있는것이다。우리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고 장학금제도가 충실한 그들이다。

그래도 연령제한따위를하지않고있다。

요즈음 우리는 50세를 넘으면 사회적으로 高齡就業者 취급을 한다。早期은퇴가추세다。대다수업종의 법정은퇴연령이 55세(일반직)、58세(관리직)인점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연령을 낮추든가 아예철폐하는것이 현실과 부합되는것이다。또한 직계卑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연령적으로 보아 대학졸업하고 군대갔다와 사회에 진출하려면 25세는 되어야한다。이때까지는 부모의 그늘아래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당국자들은 非대학진학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연령을 2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현실과 동떨어진처사다。

둘째 이에관련하여 짚고넘어가지 않을수 없는것은 교육비공제다。소득세법 61條는 교육비공제대상을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공납금등 ▲교육법에의한 학교(유치원、대학、대학원)의 학생인 2인이내의 직계卑屬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공납금등으로 되어있다。대학교육비가 가장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예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특히 자녀가대학에들어가는 연령이 되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50대가 된다。자녀교육비의 가중과 정년의 불안감을떠메고 샌드위치가 된다。장학제도가 확산되기전까지는 대학교육비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이 합리적이아닌가한다。

전국의 대학생은 줄잡아 1백만명、부모들의 주름은 크다。미국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자녀의 교육비는 전액공제되나 자녀의 대학교이상의 교육비는 공제되지않는다。레이건대통령이지난4월대학교육비공제를 주장했다가 의회의 거부로 입법 좌절되었다。그러나 私學에 상대적으로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 公立학교측의 거센반발이 일어났던것이 좌절의 일부 원인이기도하다。

셋째는 의료비공제 문제다。소득세법에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경우로 제한하고 그것도 상한선을 24만원으로 해놓았다。上限과 下限이 너무 엄격하다。미국은 上限과 下限을 각각 총급여액의 5%미만과 1%초과하는 선으로 하고있다。공제대상도 환자의 교통비에서부터 정형수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다。심지어 의사의 권유로 환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환자의자택에 에어컨이나 가습기를 설치하는경우에도 공제해 주고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上限과 下限을 결정한는데는 이처럼 공제 대상이 넓기 때문이다。공제대상이 극히 제한적인우리로서는 上·下의 제한폭을 완화 하는것이 바람직할것같다。또한 한도액도24만원은 인색한것 같다。

네째 장애자공제 연24만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미국의 경우 장애자에게는 1천달러씩 더 공제해준다。

공제기준을 보다 현실과 접근시켜주는것이 과세의 형평을 바로 잡는 지름길인것 같다。【李炷昇기자】

메아리

故鄕

金聖佑 〈編輯委員〉

가을은 고향을 생각하는 철이다。어린시절의 고향이 그립지 않을까마는 하늘이 더욱 푸르러지고 햇곡식이 시장에 나돌고 하면 불현듯 고향의 들판을 생각하게 된다。온 동산에 살구꽃 복숭아꽃피는 봄의 고향도 향기롭지 않은것은 아니지마는 金波출렁이는 가을의고향은 한결 風味가 있다。게다가 가을에는 秋夕이 있지않은가。

秋夕을 앞두고 올해도 벌써 歸省준비들이 한창이다。모두들 마음이들떠 童心으로 돌아가있다。秋夕을맞은 이맘때는 한해중 우리의마음이 가장 아름다와지는 때일것이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秋夕歸省때 이동하는 인구가 약3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서울서만도 6명중 1명은 고향을 찾아 내려간다。

고향은 아무래도 동양적인개념인것같다。그리고 특히 한국적인것이 아닌지 모르겠다。서양사람이라고 해서 고향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우리처럼 법석을 떠는일은 없고 고향이란 말이 저들에게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말에서 느끼는것같은 짜릿한감동이없다。詩文이나 노래를 보더라도 우리만큼 故鄕頌이 많은 나라도 흔치않다。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말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하나를 고르라면「고향」이란 말을 치켜들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을것이다。고향이란 말에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安息이 있고 위안이 있다。그리고 무엇보다그리움이 있다。

고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겨레의 心性의 共感帶이자 모든 길의 始發點이자 애정의 원천이다。

이런 고향이면서도 벼르던 귀향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올때는 달라진 고향에 실망의 말을 하는것을 종종 듣는다。고향의 골목길은 넓혀지고 집들은 새로 들어섰다。하지만 고향이 언제까지나 옛날같기만할수는 어차피 없는 것이다。

魯迅은 20년만에 고향을 찾아가 집을 정리하고 北京으로 이사를 나온 자신의 체험을「고향」이란 단편소설로 썼다。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달라져있는 고향을 보고 한숨 짓는다。

「아、이것이 한시도 잊지못한 고향이던가。내가 기억하고있는 고향은 전혀 이런것이 아니었다。고향의 아름다움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좋은점을 말로 표현해보려고 하면 그모습은 지워지고 말이 잊혀지고 만다。그래서 나는 자신을 위안한다、본시 고향이란 이런것이니라고。」

예나 이제나 고향이란 그런것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향집에 돌아와 어릴때 친구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린다。이윽고 나타난 친구는 어릴때 그 소년이 아니다。키는 커지고 얼굴은 주름지고하여 기억속의 소년과 전혀 닮은데가 없다。그리고 그 친구는 도시에서온 옛친구를「나으리」라고 부른다。주인공은 두꺼운 벽을 느끼고 고향땅을 영영 떠난다。

고향의成分은무엇인가。흙인가 나무인가。그山川보다는 오히려 마을을 떠나지않고사는사람들이고향을구성하는主要素가 아닌가싶다。조상傳來의땅에서 큰도회의 유혹에 한눈팔지않고 꿋꿋이 마을을 지키며 타관땅에나간 고장사람들이 추석명절때라도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손을 멈추고 덥썩 손을 잡아주는 어르신네들과 옛친구들。이들이 바로 고향자체다。

이들이 고향을 지키지않고 이들이 魯迅의「고향」에서 처럼 생소한 사람이되면 누가 고향을 찾아가겠는가。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향에 남아있는 이들의 고마움을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것인가。고향이 자랑이라면 이들에게 감사하자。추석에 내려가면 조상의 무덤앞에 섰묘를 하듯 生前의 이들에게 드려 큰 절을 하자。이들은 우리의 알큐오네우스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巨人 알큐오네우스는 자기 고향에 있는동안은 절대로 죽지않는 不死身이다。올림포스山에서 諸神들의 싸움이 벌어졌을때 영웅 헤라클레스는 알큐오네우스를 그의 고향땅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야 죽일수 있었다。

고향땅을 벗어나면 죽는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향이 있고 해마다 秋夕때면 歸省列車가 만원이다。

◇흐뭇한 老대통령 레이건美대통령이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미스美國 테리·리·아틀리양과 악수를 하고있다. 【워싱턴22日UPI電送=聯合】

광고문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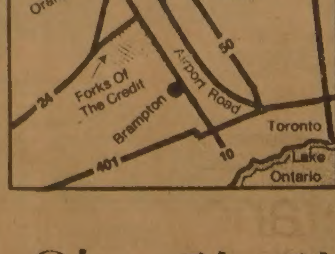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The Permanent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B)488－2444 (R)759－4560

합동단풍놀이
호남향우회 · 모악회

성추의 계절!
존경하는 향우여러분! 아름다운 단풍계절을 맞이하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저 다음과 같이 합동단풍놀이를 마련하였읍니다. 바쁘신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은 각자 지참·음료수는 주최측에서 제공함)

일 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1시
장 소 : FORKS OF CREDIT(약도참조)
연락처 : 유 인 465－8685 강기원 773－5531
권원식 423－5697 송기선 621－2059
임방식 636－3917 이정석 536－8018

〈약 도〉



〈안 내〉

㊟FORKS OF CREDIT
HWY10을 따라 북상하면 CALEDON이라는 작은 마을이나옴. 이곳에서 서쪽으로 FORKS OF CREDIT·RD. 따라가면 강을 끼고 작은 공원이 있음 이곳에서 피크닉런치를 즐기고 단풍놀이를 즐길수 있다. 10월 첫주가 피크

호남향우회 회장 장 영대 • 모 악 회 회장 임 철원

자리굳혀 가는「美國속의 한국인」 (특집판)

「教會滿員」…차츰 質的으로 탈바꿈

한국적인 執着보다 現地社會와의調和 바람직

1週에 1개꼴 생기고 1年에 10여개는사라져

美洲한국교민사회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3多」가 있다. 말(言)이 많고 여자가 많으며 또하나 교회가 많은것을 말한다. 말이 많다고함은 언어장벽이나 이질적인문화적충격때문에 미국사회 동화가 어려운나머지 내것을지키려는 높은차원의 뜻이아닌 그저그렇게 모여살다보니 「무엇은 어떻고 아무개는 저렇다」는式의 비생산적인말 홍수가 범람하게 된것. 일부 지각없는 동포들가운데선 동업동포들을 헐뜯고 무고한 고자질을 IRS(美국세청)등에해서 상대를곤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바로이런 사례다. 언제부터, 왜그렇게 됐는지는모르나 미국동포사회는 남녀의 언밸런스가극심하다. 남녀비율은 1대3이니 심지어는 결혼적령기 남녀비율은 1대4정도가 된다고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적령기의 딸을가진 동포들은 하나같이 걱정이 태산같다.

우스개소리로 「아들낳으면 속만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탄다」는 얘기와같이 여자쪽이 부모형제등 가족을 생각하는정도가 높은듯 만나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딸초청으로, 언니초청으로, 미국땅을 밟게되었다고 미국행의 시작을 얘기했다.

기자가 만나본 LA의 미군범사와 국제결혼한 한동포 여성은 64년 남편의 나라 미국으로온후 친정식구들을 불러들인 숫자가 43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수치는 먼저온 형제들이 시민권을딴 후에 이사람들이 또 부모형제를 불러온 숫자다. 말하자면 새끼가 자라 또 새끼를친 셈.

아뭏든 한국교민사회의 양적인팽창은 여성들의 힘이컸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동포사회를 특징짓는 요인은 교회가 많다는점이다.

흔히들 한국의 이민패턴이 유태인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한다. 유태인들이 미국땅을 처음찾아왔을때 그네들은 교회를통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였고 좀더나은생활 정보를 1주에 한번 교회당에서만나 교환하곤했다.

20세기초 亡國의恨을 안고 미국땅으로 건너온 우리의이민 1세들도 교회당에서 한국인이란 아이덴티티를 찾았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란 지상명제아래 하나로뭉쳤다.

이처럼 한국이민사에서 교회의위치란 교민의 정신적支柱요, 고달픈 이민생활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구원의 성당이었다.

거의 셋방禮拜 못면해

현재 약25만이상의 동포가 밀집해 살고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한 南加州의경우 그곳 한인록에 수록된 교회만 3백23개소. 어림잡아 전체교민의 60%이상이 교회를 나가고있다.

현재 예배를 보고있는 교회는 이보다도 많은 약 3백70개소로 추산된다.

1주일에평균1개꼴로교회가 생겨나고 이가운데매년10개정도가 사라져 연간 약 40개교회가 늘어나고 있는셈.

65년 이후 대량이민시대를 맞아 이민숫자증가 비율보다 교회증가율이 크게 앞섰다.

이렇게많은 교회중 50여개소만이 자기교회당을 소유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미국 같은교단교회를 빌어 셋방예배를 보고있다.

다시말하면 3백70개동포교회중 50여곳만이 자립한셈이다.

이렇게 동포교회의 양적인 팽창은 엄청났다. 현재 1년 예산이 1백만달러이상인 곳만 2개소. 나성영락교회의 경우 週헌금이 평균1만8천달러이상이고 동양선교 교회 역시 주헌금이 평균1만5천달러이상이다.

牧師엔 永住權의 특혜

치열한 教人쟁탈 비즈니스化 비난도

수적으로 비대해진 한인교회는 「그에」 비례해서 또한 문제점도 없지않다. 미 이민법이 목사안수를 받은자로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사람에겐 영주권을 신청하면보통2~4개월정도면 발급해준다. 그만큼 미국은 종교에 대해 퍽 관대하고 협조적이다. 현재 南加州지역에 만 목사가 1천여명 이상이 몰려 이혜택을 이미 얻었거나 기다리고있다. 이런 양적인 비대속에 일부에서는 무자격저질목회자 시비와함께 교회가 하느님의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聖堂이 되지못하고 교인들에게 군림하면서 지나치게 비즈니스化 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드세다. 동포교회가 안고있는 또하나의고민은 한국어세대인 이민1세에겐 성공적이었으나 영어를 읽고쓰는 영어세대2세를 이끌어나갈 목회자의 부족으로 큰부담을 안고있다.

지각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중엔 부흥회를 통한 교인쟁탈전이 과거 남대문·동대문시장의 장사치가 길가는사람붙들고 물건을 팔듯 야단이다. 본국의 이름있는 전문적인 부흥사를 불러다가 혹은 인기있는 가수·탤런트·코미디언등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소위 신앙간증이니해서 이웃교회신도들까지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또한 교회가 조금다져지고 커나갈라치면 부목사나 시무목사들이 일부장로들과야합, 세포분열하듯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한다.

이런 소수의 과도기적인 병폐에 대해 많은 교역자들이 70년대의 量的인 팽창으로부터 80년대는 質的인 성장으로 나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南加州 26개교단 3백50개 교회를 총괄하고있는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尹喆桂목사(로스앤젤레스 헤브론장로교회시무)는 『예수님아래 각교단이 동포적인 일체감을 갖고 하나로 연합할수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겠다』고 호소하고있다.

『교육·가정·교회까지도 부패해진 미국을 퓨리턴(청교도) 정신으로 일깨워줘야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의빛을 우리가 이제 갚을차례이지요』

다른소수민족들은 교회당은 갖고있지만 목사가없어 전전긍긍하고있다.

『교회본래의 사명인 복음전도를위해 여러목사님들의 자질향상을 최우선과제로 하고있지요. 세미나등을통해서 교역자들을정화에 힘써야지요』라고 尹목사는 말한다.

『목사도 목사다와야하지만 교인도 교인다와야지요』『일본인들경우 어린이까지도 교회에 나오면 어른들과같이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보지요』 코피를 교회바닥 카피트에 흘리고 씹고있던 껌을 의자나 바닥에 아무렇게나버리는 어린이들. 우리동포들의 가정교육이나 공공정신을 일깨울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다수 동포교회가 미국인교회당을 빌어쓰고있는 실정이라 더욱 조심해야할것이라고했다.

동포들 교회현주소를 설명하는 이창순목사(로스앤젤레스 윌셔연합감리교회시무·클레아몬트大 목회학박사)의설명은 더욱 명료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앙이란 全人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것. 여기엔 인내와 고통, 희생이 따른다. 상당수의 교회가 이것을무시하고 인내와 희생, 고통을 피하도록 비현실적으로 유도해서 마치 자기들이 복을주는주체로 인식시키고 있다.

예수만 잘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아 장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좋은대학간다고 선전, 무조건 예수를 잘 믿으라고만 강조한다.

전문적인 부흥사들의 쇼맨십에 길들돼 자기교회목사는 우습게알고 부흥사를 더따르는 웃지못할 사례도 많다.

목사의 지배욕망(Sadism)과 교인들의 피지배복종욕망(Masochism)이 합쳐지면 인간이 노예나 다름없는 완전한 독재가 생겨나고 목사는 영웅화되어 「11조 잘내라」 「감사헌금 잘바쳐라」 모두 죄인이라 야단쳐도 자기판단 능력을 상실한 교인들은 모든일에 『목사님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따르겠읍니다』로 된다는것이 李목사의 주장이다.

동포교회가 해야할일은 교인이 일단은 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점을 망각하지말고 어느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중간에서 양쪽기능을 통합·조정할수있어야한다.

현재 한인교회가 너무 한국적인것에 집착하고있는 점은 바람직스럽지못하다.

한국인이란 자부심때문에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에 들어가지못하는 어려움때문이라면 우선 교회부터가 미국사회로 들어가는 동포들을고무격려해서 코메리칸의 좌표를 찾아야한다고 李목사는 강조한다.

그러나 韓美수교1백주년, 美洲이민80년을 맞아 量的인 팽창에서 質的인 성장으로 조용하게탈바꿈을시도하고있는 미국속의 한인교회들. 짧은 이민역사에도불구 믿음을 가진 민족으로 평가받고있는 코메리칸들은 오늘도 자기개혁을위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LA=盧繼煥기자】

◇일부동포교회는 전문적인 부흥사를 불러다 신자쟁탈전까지도 벌이기도 한다。사진은 야외촛불예배를 보고있는 LA동포들。

韓人教會 1천개넘어

LA침례교회 工事費만 1百萬弗

60%가 教人…초기移民시절엔 정신적 安息處

美洲에서 한인교회 역사는 이민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약7천명의 농업이민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고향을등진 失鄕民에겐 큰정신적 支柱가되고 있었다.

美洲첫한인교회인로버트슨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첫예배를 본것이 1904년3월11일.

舊韓末 호남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전하러 파송되었던 미국인 선교사 셔먼부인(Mrs. Sherman)이귀국해서다. 그녀는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부근의 매그놀리아거리에 조그마한 장소를빌어 하와이서 건너온 한국인 몇사람을 상대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고 일요일에는한국어로 예배를 봤다. 이것이 美洲에서의 한인교회 효시.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던 초기의 각박한 이민생활에서교회는 정신적인 안식처요, 교포들끼리 주일이면 그리운얼굴들을 맞대며 더나은 일자리를 찾아내는 정보교환장소이기도했다. 말하자면 교회는 초기이민정착의 길잡이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었다. 한편으로한인교회가중심으로해서 上海에있는 임시정부에 활동자금을 모아서 보내기도하고.

6·25전란중엔미국의각구호단체에호소, 구호품을거둬 본국의난민들을돕기도했다.

60년대 개정이민법혜택으로 쏟아져들어온 코메리칸은 全美에 1천개이상의 한인교회를 세워 믿음이있는 민족으로 찬사를받고있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서울교계의 모순점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일부의 비판속에도 착실히성장, 77년12월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블루바드와 버몬트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미주이민사상최초로 1백만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된 LA한인침례교회가 세워져 헌당예배를 보면서부터 한인교회의 새로운章이 열렸다.

70년대초 조사된 한통계자료(Koreans in Los Angeles:LA소재 C.S.U.L.A대학 한국학연구소 82년도발행)에 따르면 조사대상교회중 15.4%가 1년예산이 1만달러미만이었고 33.9%가 3만달러이상. 그중에서도 10만달러이상이 10.8%가되는걸로나타나고있다.

동자료에따르면 동포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로는 첫째가 교회의 교리에 만족, 따르기위해서, 둘째가 그교회목사를 존경하기때문에, 세째교회의 복음선교활동이 마음에 이끌려, 네째 그교회목사의개인적인 친분때문에, 다섯째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섯째 많은사람들과 친교를갖고싶어서, 일곱째 미국생활의 고독감을 씻기위해, 여덟째하루하루 일상생활에 필요한정보를 얻기위해서 등순서로흥미로운 대답을하고있다.

응답에서 보는바와같이 우리동포들이 교회에 나가는것은 물론 기독교리에 따른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의지가 담겨있지만 상당수가이질문화권에서오는 소외감내지는 고독감해소를 목적으로 또는 성직자의 개인적인친분관계나 일상생활의 지혜를얻으러 교회에 나간다는 흥미있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당시통계는 한인교회가 잘 정착되었고 재정적으로 독립해가고있다고부연하고있다.

7~8년이지난 현재는 1년예산이 1백만달러가 넘는 곳이 2개소고 조만간1백만대를 올라설 교회가 3~4개소 더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6월 마지막주일 예배땐 로스앤젤레스의 영락교회는 당일헌금이 2만8천달러나돼 미주한인교회사상 톱을 이루었다.

이처럼 재정적으로 기반을 다진 교포교계는 외국쪽으로 선교의방향을돌려가고있다.

미국에서 목회를 보고있는 상당수의 목사들이 吉林省등 우리교포가 밀집돼있는 中共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녀오기도했다.

◇1977년12월 공사비 1백만달러를 들여 신축된 로스앤젤레스 나성한인침례교회。
【로스앤젤레스支社=柳根哲기자찍음】

지난6월21,22일 이틀간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尹喆桂목사)주최로 남가주지역 각교단별로 37명의 목사가 참석해 열렸던 제1회 남가주교역자수련대회에선 中共선교이유를 다음과같이 설명하고있다.

첫째 中共이 인구수로는 세계최대의 단일국가이며 둘째 中共에 아직 기독교의 뿌리가 없고 鄧小平의 실용화노선이후 中共이 기독교에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언젠가는 각국의 선교단이 몰릴것에대비, 미주한인교회가 對中共선교의 이니셔티브를 갖자는점이다. 마지막으로는 中共이 지정학적요인으로 한국과는 공감대가많고우리교포가많이 살고있다는점등을들고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우리이민교회 자체내부의 고질적병폐는 덮어둔채 너무 외국지향적이란 소리와함께 내실부터 먼저 다져야할게 아니냐는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지만 우리의 이민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전하러 竹의장막에까지 갈수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선교1백년사에기록할만한 일이다.

남가주의경우 열사람중 여섯사람이상이 교회를 나가고있고 이런 교인증가추세는이민이 계속되는한 멈추지않을것이란것이남가주교민실태를 10여년째 지켜보고 있는 한국일보로스앤젤레스지사閔丙用국장의 전망이다.【瑄】

"불우洞民 위해 써주세요."

2년계속276萬원 보내와

익명 독지가 淸白吏집에

〔仁川〕익명의 독지가가 추석을 앞두고 2년째 두차례에 걸쳐 현금2백76만원을 청백리로 알려진 한공무원집에 남몰래 보내 이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고있어 화제.

21일 상오 6시30분께 仁川시北區富平4洞 이종열씨(48·인천시 북구청세무1계장)집편지함속에 누군가 신문지로 싼 현금1백40만원 뭉치를 넣고사라졌다.

이돈뭉치속에는 추석을앞두고 불우한 처지에있는 동민들을 위해 이돈을 써주시오』라고 적힌 메모쪽지가 들어있었다.

집주인 이씨는 『이날 초인종소리가 나서 대문을 열어보니 아무도없어 편지함을 열어보았더니 이곳에 신문지에 싼 돈뭉치와 메모쪽지가있었다』고 말했다.【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가옥주에게 드리는 말씀

잠깐만 읽어 보십시오

굴뚝에 결함이 있다면 당신집은 지금 당신 기분과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난방장치는 산소를 받아드리고 탄산가스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인간과 똑같이.

만일 난방장치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거나 탄산가스를 빼내지 못하면 집은 "숨"을 쉴 수 없다.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생겨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

굴뚝은 항상 깨끗이 소제, 난방로의 흡입, 배기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 □ 몰탈이나 벽돌조각이 떨어지거나
- □ 지붕위 굴뚝에 흰가루 또는 물자국이 있거나
- □ 굴뚝의 청소문에 물자국이 있다.

더이상의 침식을 막기위해 굴뚝미장이를 불러야 한다.

안전을 위해,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해 유자격 업자로부터 난방과 굴뚝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집도 안도의 숨을 쉴 것이다.

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
Ontario
Robert Elgie M.D.,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맛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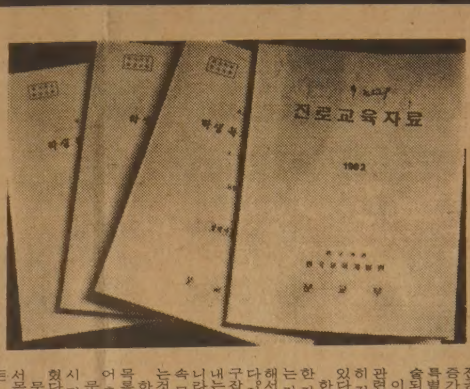
(near airport)
MISSISSAUGA

지도圖書에 日人이 쓴「韓日合倂史」등 포함

한심한 文教행정

女高 성교육자료로「素女經」추천

특정직업 美化… 再檢討해야



◇비교육적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지적받고있는 문교부발간의 교육용자료.

문교부가 전국초·중·고교의 교육용자료로만들어 배포한「학생 독서지도도서목록」과「진로교육자료」에 비교육적인내용이많아 수정이 불가피하다。문교부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상급학교진로를 바로잡아주고 건전한 독서풍토를 생활화 시켜주기위해 올해처음 막대한예산을들여 이같은 책자5만5천권을 제작, 나눠줬다。그러나 장학자료인 독서지도 도서목록 에는 국사관계권장도서로 일본인이 쓴「한일합병사」등 번역서를 그대로 소개、요즘역사왜곡사건으로 한창 말썽이 되고있는「합병」이란 용어를 그대로사용하고있다。또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다는 교육자료에는 오히려 직업간의 귀천의식과 격차감을 갖게하는 비교육적인 내용도 담고있다.

문교부가 지난21일 배포한 독서지도 도서목록중에는 과학도서로「대륙은 살아있다」등과「인간의 조건」등 소설류의 일본번역서도 상당수포함돼있다. 심지어 고교 2학년용(여학생)실업·가정과목 관계도서에는 소녀경을 권장하고 그이유로「건전한 성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하고 밝은 결혼생활을 하는데 예비적인 길거리를 얻을수있다」고 써놨다.

이 책은 중년이상 남녀들의 성생활의 비법을다룬 내용으로 청소년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한것은 당연한일.

이 도서목록은 문교부가 각 시·도교위에 목록작성을 위탁한뒤 다시취합해 전문가들에게 의뢰, 선정한것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년별로 간단한 책소개를 곁들인것.

한편 문교부가 하루 뒤인 22일 대학입시에서의 과열경쟁을막고 학생들의 올바른진로지도를위해 만든 진로교육자료도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비교육적인내용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예를들면 각직업군을나열, 그 특성과 학력전망등을 기술한 내용가운데 특정직업을 미화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깎아내려 오히려 은연중 직업간의 귀천의식을 암시하고 직업들의 격차를 특징지워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위화감을갖게하는것은 물론,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고있다.

실제로 직업정보자료에『법무종사자는 사법고시를 거쳐 임용되는 최고의 엘리트들로서 선망의대상이며…』로 되어있고 반면 우편물취급사무원(우편물분류사무원·집배원·전보배달사무원)은『학력및 전공제한없으며 우편물 양의 증가로 인력수요는 증가되나 특별한전망은없다』라고 기술되어있다.

이밖에도 이발사·미용사및 관련종사자 부문에도「특별히 전망이 없다」고 기술돼있다.

한 교육전문가는『조그마한 자료라도 교육에 관계되는 자료는 미치는영향을생각해서 지극히 신중을기해야한다。이처럼 충분한검토없이마구잡이로 교육자료를 만들어내는것은 예산낭비일뿐만 아니라 전시효과만을노리는 졸속 문교행정을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교부 관계자는『책목록을 작성하는데 시간이없어 충분히 검토하지못했다。문제된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된 학생독서지도도서목록은 문교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진로교육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신모씨(책임연구자)와 이모、김모씨등의 연구로 만들어졌다. 【李鍾九기자】

前科18犯 姜寅煥씨 구속

未竣工주택 完工된것처럼 속여 19억원 不正대출

◇姜寅煥씨

서울麻浦경찰서는 22일 미준공주택을 완공된것처럼 속여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19억원을 빼내 가로챈 姜寅煥씨(40·사기전과18범·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시범아파트21동71호)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姜씨에게 대출을 해주며 담보물조사를 제대로하지않은 전서울信託은행 영업2부장 강경씨(58)등 은행원 3명、알썬주택 공사감리를맡은 仁川건축사무소직원、감정가를 싯가보다 비싸게 감정해준 감정원仁川사무소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수수여부와 공모여부를 캐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姜씨는 지난79년 8월 仁川市南區玉蓮洞348일대 대지1만7천6백평위에 주택46동을 지으면서 자금난에 허덕이자『주택을 완공한뒤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며 인수、공정 70%밖에 짓지않은 주택을 완공한것처럼 仁川건축사무소를 통해 仁川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뒤 서울信託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9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姜씨는 또 은행에 맡긴 이주택을 成모씨에게 1억5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한뒤 다시 입주희망자들을 모집、용하씨등 45명으로부터 계약금 9천1백90만원을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21억4천여만원을 챙겨 행방을 감추었다는것.

朴尚恩양被殺사건 오늘 抗訴審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대생 朴尚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1)에 대한 항소심첫공판이 23일 하오4시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濟九부장판사·주심沈日東·배석 申聖澈판사)심리로 2백13호법정에서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에서 서울고검 金炳燦검사와 1심에서 관여했던 東部지청 姜原一부장검사·趙炳吉검사등 3명이 관여하며 변호인측은 1심때부터 선임됐던 卞甲圭변호사등 3명이 출석한다.

鄭피고인은 지난1월24일 朴양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검찰에 구속돼 지난7월9일 1심인 서울지법東部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民防衛 창설7周

내무부는 민방위창설7주년을 맞아 22일상오10시 전국시·군별로기념식을갖고 민방위발전에 공이 큰 민방위대원·공무원및 민간인5백7명을 포상했다.

포상내용을 보면 金平鉉씨(仁川市北區富平5洞2통민방위대원)등 19명에 훈장、金泰雄씨(慶南민방위과주사)등 23명에 포장、金用福씨(충북제천민방위대원)등 27명에 대통령표창、22명에 국무총리표창、4백18명에 내무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됐고 26개우수지역、직장민방위대에 단체표창이 수여됐다.

軍人치고 銃뺏아 도주

M16은 京仁高速道서 찾아

22일하오2시35분께 仁川南區松島동 선신전화국앞길에서 서울3마2845호 검정색레코드로얄승용차를 운전하고가던 30대괴한이 사격훈련을마치고 돌아오던 모부대소속 박상규상병을치자 중상을당한 박상병과 박상병의 M16소총1정과 실탄을 차에싣고 도주、신고를받은 경찰은 추석 대목을 노린 총기강도의 범행이 아닌가보고 긴급 서울 仁川지역에 비상망까지 쳤으나 총은 이날하오5시께 경인고속도로 富川톨게이트에서 서울쪽으로 1㎞쯤 떨어진곳에서 고속도로순찰차에 발견돼 회수했으며 박상병은 仁川적십자병원부근에서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는 지난20일 하오8시께 서울中區明洞1街1 YWCA후문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화의마산업주식회사(대표 河棋權·56)의 소유로 밝혀졌다.

운전사 金泰植씨(45·서울西大門區延禧1洞山82)에 의하면 이날 대표河씨를 근처에 내려주고 자동차열쇠를 꽂은채 차에서 나와 10여분간 땀을 식히고 돌아와보니 차가 없어졌다는것이다.

青少年수련장 開場

南楊州郡 天摩山에

내무부는 경기도南楊州郡和道面墨峴里 天摩山에 우리나라 최초의대규모 청소년심신수련장을 조성、22일 하오 개장했다.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자연속에서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수있도록 하기위해 총공사비 5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이심신 수련장은 天摩山계곡을 따라 총8만6천여평의 자연림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스키이점프등 모험시설 9종、공부처장등 오락시설 7종、롤러스케이트장등 운동시설 7종과 녹지관찰、야외매점、야영장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무부는 오는83년까지 釜山·大邱·仁川시 주변에도 이같은 수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隔週 5日근무 검토해볼만"

新正연휴 再調整 뜻도비쳐

朴贊兢총무처장관

朴贊兢 총무처장관은 22일『舊正을 공휴일로 하지않겠다는 정부의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1월1일부터 3일까지 新正연휴기간을 12월31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로 변경하는것이 더좋을 것』이라 지적, 新正 連休기간을 조정할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舊正은 여러가지 여건상 공휴일로 하기어렵다』면서 私見임을 전제,『오히려 우리나라 고유의명절인 秋夕을 2일간의 공휴일로 정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궁극적으로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週5일근무제를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한가지 방안으로써 첫주일은 週5일근무를 실시하고 다음주는 6일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平日과같이 8시간 근무로하는 격주5일제 근무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놀이터된 水原城廓

유적 마구훼손

【水原】경기도水原시 水原성곽(사적3호)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90도가량의 가파른 성곽을 기어오르고있어 안전사고위험은 물론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다.

성곽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놀이터시설이 없어 동네어린이들이 성곽으로 몰려 병정놀이를하면서 성곽을 오르내리고 있어 항상 불안하다는 정. 【翰】

重裝備 면허시험

順天등서 應試바라

【順天】順天市를 비롯한 麗水·光陽·寶城등 全南도내 동부지역주민들은 順天지방에서도 중장비면허시험을 치를수있도록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22일 이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특수차량인 트레일러·지게차등 각종 중장비면허를 받기위해 順天市에있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있는데도 면허시험은 光州에서만 치르게 지정돼있어 불편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5行뉴스

◆이달 班常會 24일에

내무부는 9월 정례반상회를 추석절 준비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앞당겨 24일 하오 8시에 전국 일제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朝總聯系 재일동포 秋夕성묘단

1陣2백30명 入國

조총련계재일동포 추석성묘단 1진 2백30명이 22일 낮 대한항공편으로 金浦공항에 입국,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겼다.

대부분 나고야(名古屋)와 요꼬하마(橫濱)에 거주하는 이들 교포들은 이날 간단한 공항환영행사에 참석한뒤 저녁엔 숙소인 워커힐·호텔에서 베풀어진 환영만찬을즐기고 기념공연을 관람하며 서울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이들은 방한2일째인 23일엔 국립묘지·望鄕의동산을참배하고 24일엔 浦項제철등 산업시설시찰과 慶州고적지를 관광하고 마지막날인 25일엔 蔚山·金山에서 해산, 각자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찾게된다.

오는26일까지 13진으로 나뉘 모두 1천3백명이 입국하게될 올 조총련계 재일동포 추석성묘단은 대부분 지난75년부터 계속된 모국방문사업을 거부해온 조총련계 핵심조직요원들로 ◆전·현직 조총련간부 ◆조총련 조직활동의 자금원인 유력상공인 ◆조총련조직의 핵심요원인 조선중·고교와 朝大출신자 등 2~3세 청년층 동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호스티스에 旅券…日本보내

14명 出張위장 두會社대표 拘束

서울 永登浦경찰서는 22일 안양종합통상주식회사 대표 文명화씨(36·서울 江西區 木洞164의2)와 일한양행 대표 盧載永씨(27·서울 江南區 盤浦洞164의14)、같은회사 총무과장 趙仁鎬씨(26·서울 江西區 鹽倉洞102의31)등 3명을 여권법 위반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文씨는 3년전 서울永登浦區新吉洞1351 천록빌딩701호실에 의류수출업체인 한양종합통상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지난5월14일부터 지금까지 호스티스 林모양(23·龍山區 厚岩洞)등 14명으로부터 1인당 50~2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받고 일본에 불법출국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외무부여권과에『견본제작및 디자인협의차 출국한다』면서 林양등을 자기회사 사원으로 위장, 상용여권을 발급받게한뒤 일본大阪소재 화랑클럽·조화클럽등에 1인당 1개월에 35만원씩받고 호스티스로 일하게알선까지 해주었다는것.

또 盧씨등도 지난1월초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J빌딩 202호실에 일한양행이란 완구및 인형수출업체를차려놓고 蔡모양(22)등 4명으로부터 30~1백50만원씩 모두3백20만원을받고『완구류및 여성용액세서리수출업무차 출국한다』고 회사사원으로속여 출국시킨뒤 大阪에 있는 코리아나클럽、화랑클럽 등지에 넘기고 술집주인으로부터 1인당 1개월에1백50만원씩 모두6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汝矣島등지의 술집호스티스들을 상대로『일본 유흥업소에 취직하면 큰돈을 벌수있다』며 희망자를모집、여권을 발급받은후 직접인솔하고 현지까지 동행해 돈을 받고 호스티스를 넘겨주는 수법을썼다.

樂士 50명에 허위出張증명서

商用여권 發給받아 出國시켜

서울시경은 22일 허위재직 및 출장증명서를 떼주어 악사50명이 상용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케해준 서울鍾路區清進洞3의2 港韓기업사 대표 金南錫씨(40·전과4범)를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콘트라베이스주자로 연예인협회 회원인 金씨는 지난해1월 피조개등 어물수출회사인 港韓기업사를 설립, 자기회사에 근무하지도않는 安모씨(37)로부터 1백50만원을 받고 영업부사원인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주어 지난해10월23일 출국토록 해주는등 50명으로부터모두 3천여만원을받고 해외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과잉生産 값떨어져 어미돼지 줄이기로

【金泉】경북金泉市와 金陵郡은 돼지의 과잉생산으로 값이 계속 떨어져 양돈업계가 불황을 겪게되자 어미돼지를 18% 줄이기로했다.

20일 金陵郡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사육되고있는 돼지는 모두 8천8백여마리로 지난해보다 8백여마리、金泉市의 경우도 2천9백여마리로 5백여마리가 각각 늘어나 생체값이 지난5월의 6백g에 1천2백원에서 8백50원선으로 3백50원 내려 사육농가들이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다.

이같이 돼지생체값이 떨어지자 6백g에 최저1천원선을 유지시키기위해 金陵郡은 현재 1천7백65마리의 어미돼지중 18%인 3백30마리를、金泉市는 1백41마리중 21마리를 줄이기로하고 번식력이 약해진 종돈을 도축토록 사육농가에 권장키로했다. 【翰】

鷺山 社會葬엄수

"이승에 남긴 藝術 영원히남아"

◇사회葬으로 엄수된 고鷺山 李殷相선생의 영결식에 참석한 각계인사들이 분향,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 鷺山 李殷相선생의 영결식이 22일 상오11시 銅雀洞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유족및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날 상오8시30분 서울龍山區 漢南洞1의300 유엔빌리지46 자택앞길에서 발인제로 시작된 고인의 사회장은 유해가 국립묘지로 운구된다음 현충관에서의 영결식, 제1국가 유공자 묘역에서의 안장식등의 순서로 거행됐다.

이날 白樂濬장례위원장은 식사를 통해『이제 저승으로 간 鷺山선생은 이승에서 민족과 더불어 일하고 살았으며 그분이 남긴 학문과 예술은 우리민족문화사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라고 추모했다.

영결식은 이어 독립유공자를 대표해 劉錫鉉광복회고문과 문인을 대표한 金東里예술원장의 조사、弔詩낭독、고인의 육성녹음청취、가곡합창、분향및 헌화순서로 진행돼 1시간30여분만에 끝났다.

한편 영결식에앞서 고인의 유해는 상오9시20분 金聖培鷺山문화회장등 회원12명이 운구했는데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스파이더맨」

岩壁타기 第1人者 朴炳元씨

美 엘·캐피탄峰 오른 최초의 東洋人

「仙仁峰털보」朴炳元씨(30·사진)하면 산을 탄다는 사람치고 모르는 이가 드물다. 틈만 있으면 암벽에 매달리는 그는 산악인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영락없이 산에 미친 사람이다.

그의 암벽타기 솜씨는 가히 神技에 가깝다. 세계산악연합회의 공인 급수로도 최고급수인 7급이고 국내 산악인중에서는 베스트텐에 든다.

그의 암벽타는 기술은 외국에도 잘알려져 있다. 지난7월 한국음반산악회 요세미테등반대(대장 李龍浩·32)의 대원으로 참가, 세계최난코스의 하나인 미국요세미테국립공원의 엘·캐피탄峰을 동양인으로는 처음 정복했을때 세계산악인들은 조그마한 동양인의 기량에 주목했다.

엘·캐피탄峰은 사막의 계곡에 솟은 높이 1천1백m의 수직암봉. 암벽이 불처럼 뜨거워『사막의 불기둥』으로 불리는데 평균경사가 95도의 직벽 난코스다. 공원당국도 5월과 9월외에는 등반허가를 안해주는 정도다.

한국등반대는 오랜교섭끝에 7월 등반을 허가받아 10여개의 코스중 최대난코스를 택했다. 코스전장이 1천8백50m로 동양의 여러등반대가 실패했었다.

朴씨는 보통사람은 10초도 매달려있지못할 암벽에 거미처럼 달라붙었다. 매시간 40~50m씩 하루12시간을 기어올랐다. 코스의 3분의2는 도구없이 오르는 자유등반을 고집했다. 그것도 60kg의 짐을 끌고 암벽은 햇볕에 달구어져 50도는 되는듯했고 이때문에 손바닥이 다 벗겨졌다.

4박5일간의 고투끝에 정상에올랐을때『무모한 짓』이라고 만류했던 세계각국의 80여개팀들은 키 1m57cm·체중 54kg의 왜소한 체격의 朴씨에게「스파이더맨」이란 애칭을 붙여주고 다투어 등반도구를 교환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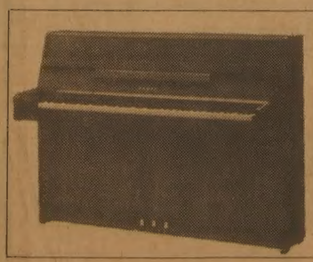
朴씨가 산에 미치기 시작한것은 12년전 安東工高를 졸업할때 부터. 무작정상경, 인쇄소에 다니던 그는 어느날 산에갔다가 암벽에 붙어있는 산사나이들을 보았다.

그것이 산에 미치기 시작한 계기다. 한번은 바위에서 추락, 팔을다쳐 병원에 입원했으나 하룻만에 병원을 빠져나와 산으로 달려갔을 정도로 푹 빠져들었다.

『산을 가볍게알고「정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많습니다. 산을 정말 사랑하는사람은「정복」이란말을 쓰지않지요. 다만 산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方晙俊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50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한국일보 詩壇

맨발로 내가 왔다

愼 協

맨발로 내가 왔다
몇 劫을 돌아
달빛 軌道를 따라
먼 길을 걸어서
맨발로 내가 왔다
어두운 골목에서
시꺼먼 강바닥에서
무너진 섬터에서
간신히 맨발로 돌아왔다
샘물 곁에서 살을레라
가진 것은 없어도
오손도손 이웃끼리
꽃신 같이만 살을레라
가을밤 별 곁에서 잠든
나의 어린것들아
너희가 꿈꾸는 동안
맨발로 내가 왔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趙治勳名人, 쾌조의 2連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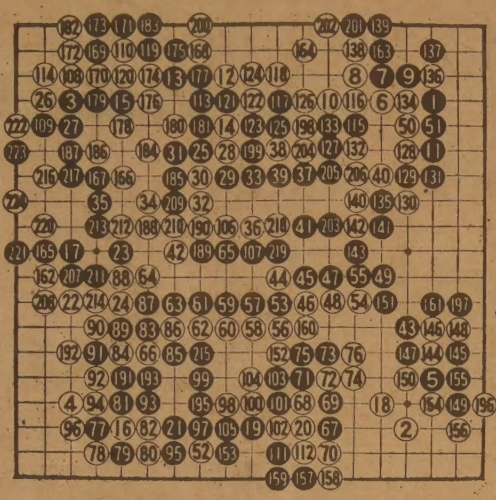
방어戰 7번기 大竹9단에

금년도 碁聖戰도전 5번기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碁聖에게 2승3패로 패했던 趙治勳名人이 名人戰방어 7번기에서는 호조를 보여 도전자인 오오다께9단에게 2연승을 거두었다。趙名人은 지난8、9양일간 열린 제7기名人戰 제1국에서 오오다께9단에게 집흑으로 2백15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으며 20、21양일간에 열린 제2국에서는 집백으로 2백44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오오다께9단은 제2국 첫날인 20일 지나친 긴장으로 허리에 통증이 일어나 대국을중단하고 두번이나 치료를 받는등 심리적으로 이미 져있었다。

名人戰승부의 향방은 아직 알수없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守城이 攻城보다 힘들다」는 말과는 달리 趙·大竹두 거인이 각기 자기몫을 지키는 것으로 일단락될듯한 낌새。

그러나 趙名人은 이번 승리로 오오다께9단과의 통산전적에서 21승20패로 역전의 계기를 잡았다。日本의 바둑잡지인 「週刊碁」는 최근호에서 趙·大竹두 기사의 통산전적을 소개했는데 제7기名人戰이 시작되기전까지의 대전결과는 오오다께6단이 20승19패로 앞서있었다。

금년의 전적은 十段戰도전 5번기에서 趙名人이 3승1패, 碁聖戰도전 5번기에서 趙名人이 2승3패로 趙名人이 도합 5승4패를 기록했는데 이번의 2승으로 7승4패의 압도적인 우세를보이고있다。



◇제7기 名人戰도전 7번기 제2국總譜(1~224) 白 名人 趙治勳9단(2승) 黑 도전자 大竹英雄9단(2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白不計勝> ▲194는 91자리。

通算전적 20승19패로 우세

KBS3TV서 바둑왕戰 26일부터復活

曺薰鉉9단 棋王戰 2국서 徐7단 이겨

바둑소식

○…MBC帝王戰에 이어 KBS·TV도 TV棋戰인 KBS바둑왕戰을 부활시킴으로써 TV棋戰時代가 막을 열었다。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하오 1시10분부터 2시10분까지 1시간동안「바둑강좌」를 내보내던 KBS 제3TV는 26일부터 편성을 바꿔 하오 1시부터 1시20분까지 20분간 「바둑강좌」를 방송하고 1시20분부터 2시30분까지 70분간은 전문기사들의 대결로 꾸며지는「KBS바둑王戰」을 내보낸다. 지금까지 「바둑강좌」의 해설을 맡았던 金秀英6단은「바둑王戰」의 해설을 맡게되고 「바둑강좌」의 해설은 李奉根6단이 담당한다。

KBS는 원래 80년도에 제1기 KBS바둑王戰을 신설하여 曺薰鉉名人이 타이틀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이프로를 중단했다。그러나 금년에 신설된 MBC·TV의 帝王戰이 인기를 끄는데 자극을 받아서인지 다시 棋戰을 신설하게되었다。상금은 우승자가 2백만원,준우승 1백만원。

KBS바둑王戰의 신설은 전문기사들은 물론 일반애호가들에게도 극히반가운소식。TV棋戰은 시청자들이 바둑판을 들여다보고있어 「13-2」같이 부호로 설명해야하는 紙上棋戰보다 훨씬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것이다。따라서 바둑팬들은 새로 시작되는「바둑王戰」이 다시는 중단되지않기를 바라고 있다。

○…제7기棋王戰도전7번기의 첫국에서 도전자인 徐奉洙7단에게 패했던 曺薰鉉棋王이 17일에 열린 제2국에서는 집흑으로 2백35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韓國棋院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이날의 대국에서 曺名人은 초반부터 장고를 거듭하는등 신중히 반면을 이끌어간 끝에 이겼는데 두 대국자의 소비시간은 曺9단이 4시간59분, 徐7단이 4시간56분으로 모두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다。제3국은 29일 열린다。【平】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群商기세 여전

馬商에 콜드勝

사자기野球

群山商高의 기세는 여전했다。금년도 봉황대기、청룡기대회 우승팀인 群山商高는20일 서울운동장서 속행된 제36회 황금사자기고교야구대회 3일째 경기서 에이스趙啓顯을 내세우지않고서도 찬스때마다 맹공을 퍼부어 馬山商高를 9-2、7회 콜드게임으로 꺾고 마지막으로2회전에 올랐다。한편 培明高도 7안타와 春川高 내야진의 에러를 착실히 득점에연결、7-1로 대승했다。

이날 群山商은 1회초 1년생 언더드로 李光雨를 선발로 내세워 2점을 선제당했으나 李東錫으로 교체한후 찬스에 강한 특유의 기질을 발휘、鄭命津、高永述을 계투시킨 馬山商에 후반 맹폭을 가해 9-2로 대승했다。

1회초 1번 田基榮의 빗맞은 볼이 우익수앞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가 되어 득점찬스를 잡은 馬山商은 보내기번트와 3번 金亨燮의 우중간 2루타、4번 曺永川의 중전안타로 2점을 선제、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群山商은 1회말 1번 高長亮의 좌월 2루타와 보내기 번트、3번 白仁浩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고 3회말 안타와 두개의 번트로 동점을 만들었다。群山商은 4회말 9번 李承雨의 내야안타로 전세를 뒤집은후 중반에 4점을추가하고 7회말 8번 李東錫의 주자 일소 3루타로 3점을 더해 9-2、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제3일 1회전

춘천고	000	100	000	1
배명고	211	020	10×	7
마산상고	200	000	0	2
군산상고	101	112	3	9

<7회콜드게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㉓

오복이의 산동네에서의 첫 겨울은 꼭꼭이 행복했고 한편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조마조마했다。

음력설 양력설을 다 쇠었으니 아기는 햇수로 두살이 되었고, 순하고 건강했고 일환이는 그날이 그날같이 착실하고 천연덕스러웠다。아직 봄은 멀었지만, 너너하되 온기는 없던 산동네의 햇볕에도 하루하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복이가 자신의 아무 일 없는 일상과 일환이의 [illegible]기찬 천연덕스러움에서 어떤 전조를 감지해내려고 남 모르게 안테나를 하나 곧두세우고 사는 증상은조금도 나아지지않았다。

어쩌면 조금씩 더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기에게 아직도 이름이없었다。일환이는 아기 이름을 짓는척도 안했다。일환이보다 더 나쁜 것은 오복이었다。오복이는 오복이대로 아기이름을 짓자고 해야지 벼르기만하고 막상 일환이를 보면 그 말을 못했다。

기분이 좋거나 술이 거나할때 일환이는 아기를 우리 팔삭동이라고 불렀다。그래서 옆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도 아기가 미리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요새세상에 팔삭동이를 [illegible] 보치는 사람은 산동네에도 없었다。되레 달을 못채운 아기가 무병하고 탐스럽게 자라는 걸 대견하고 신통하게 봐주었다。

일환이가 한참 기분에 좋아 아기를 안고 우리 팔삭동이 녀석 넉꼭, 우리 팔삭동이 넉꼭 넉꼭 어르면서 으쓱대던 [illegible] 춤을 춰대면 오복이는 가슴 깊은 곳을 단단히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화끈대고 아팠다。

뭐가 [illegible] 못참아 넘기겠다아 신음을 악물어야 했다。

오복이는 알고 있었다。그가 정말 아기에게 하고싶은 말은「너는 결코 팔삭동이가 아니지」라는 말이라는것을。그 말을 참아내기위해 그는 거의 주문(呪文)처럼 그반대말을 외고있을뿐이라는걸。지금은 그 참말을 천연덕스럽게 참아내고있지만 언제고 그것을 못참게 되겠지。그가 그것을 못참게 될때、그들의 찬찬한 일상이 얼마나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릴 것인가?그 생각은 언제나 저주의 가위가 되어 그녀를 위협했다。

그래도 산동네의 풍습에따라 부업을했다。이것저것 남의 일거리에서 조금씩 얻어다가 손대보다가 수편물에수를 놓는 일을 붙박이로 맡아하게됐다。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 그녀가 수놓은 수편물은 인기가 있어 그녀의 부수입은 누구보다도 짭짤했다。

형편없이 임금이 낮고 또、비위생적인 부업에서 얻은 순돈이 부수입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식구 밥줄을 전적으로 매달아야하는 쪽네 여편네들은 모두 오복이네를 부러워했다。

남편이 빈둥빈둥 노는 그들의 형편에 비하면 부부가 다 돈을 버는 오복이네가 새로운 알부자로 보이는 건 당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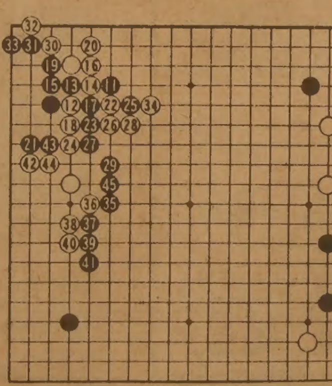
처음엔 오복이의 부업을 반대하던 일환이도 그게 조금도 힘이 안드는데다 동네 분위기에 따라 모른척 하게됐고, 차차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게됐다。

뛰어나는 삽화실이와 함께 다달이 늘어나는 저금은 일환이에게도 오복이 못지않게 큰 기쁨이 되었다。

오복이가 맡은 [illegible] 스웨터나 조끼에다 색색가지 벌실로 꽃이나 나비, [illegible] 이니시얼을 수놓는 동안 아기가 칭얼대면 일환이는 [illegible] 능숙하게 달래면서 구성지게 자장가를 불렀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3局 第2譜 11~45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鄭昌鉉
黑(4段) 李相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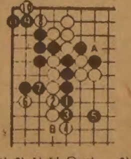
黑11로 씌워 복잡한 싸움을 시도한 것은 李4단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아무리 여러가지변화를 일으키는 정석이라도 이하 黑19까지는 이른바 기본형이어서 외울길이다。

白20이 간혹 보게되는 수인데 이에 대하여 黑은 3종류의 수단이있다。黑21로 그냥달리는 수와 30자리에 뻗는수 그리고 22쪽 끊어잇는 수등으로서 어느것이나 일장일단, 우열을 따지기에 앞서 당시의 기분과 취향에따르게 된다고 한다。

실전처럼 黑21이면 白22에서 24로 뻗는것이 백점이다。黑도 물론 그걸 빤히 알고서 이에 대비한 25、27이 호착이다。

이리하여 싸움은 예상했던대로 치열하게 확산되어 간다。이런형일수록 한수 삐끗하면 와장창무너진다。피차 복잡한싸움인데도 가벼운 조크를 주고받는다。鄭「정석을 잊었어」李「나도 그런걸요」「어떻게 두지?」「글쎄요」

확산되는 접전



黑29는 참고도처럼 黑1、3으로 모지게두어 黑11다음 「A」와 「B」를 맞보아야 유력했다는 국후중론이고, 白36은 「대전이긴하나 黑37이하 45로 黑세가 굳어졌다。따라서 36은 뻔뻔하게 38에 뛰어야 좋았을 것같다」는 의견。이근처 서로 난제는 났겠지만 그런대로 접인가경이다。【一凡】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라사　BAND－기타 : 신상진
올겐 : 한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 1618

김명종한약방
침 · 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 기혈부족 · 신경과민 · 노이로제 · 허리병 · 근육통 · 부인병 ·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Yonge　King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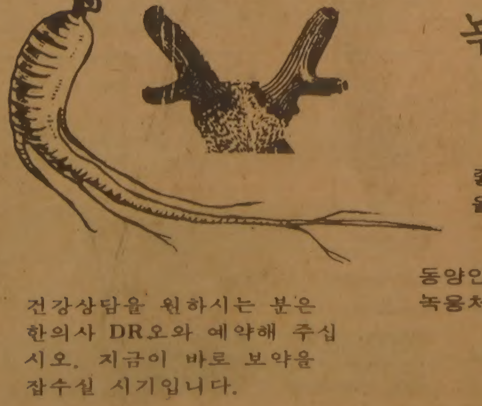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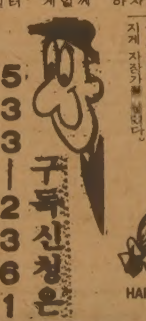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 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청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구독신청은
533-2361
HAPPY TIME

한국인 유일의
야채·파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흡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광고문의 ☎ : 533-2361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쉘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여권분실

성명 : 김우경
여권번호 : T.R.W.000768
연락처 : 469-2082 750A Broadview Av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번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 고 접 수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구함
261 Scarlett Rd.
(at Eglinton Ave. W.)

사무실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으로 경험있고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분 환영합니다.
전화 : 365—1489, 763—3289

남자 파타임 가게 헬퍼 구함
(Finch × 웨스톤 근처)
전화 : 741—1465

좋은사람 찾음(Gain)
877 Dundas St. W.
Bathurst 서쪽 300여m거리

경험있는 홀·타입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여자용 코트등 의류품 만드는 회사에서 양재 또는 재봉일에 경험있으신 분 약간명 모집.
★ Sewing Machine Operators
★ Cutters ★ Pressers
Irving Posluns
637 Lakeshore Blvd. W.
Call 591—7128
Evening After 7시 270—1981(Mr. Arbour)

Dunut Shop에서 일할분 구함.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Sunday Night 부터 Friday 오전 8시까지. 전화 : 482—4088

북쪽에 사는 분으로 자동차 소유자로써 가게헬퍼 하실분.
(지역 : Kingcity)
전화 : 833—6318

파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남녀불문)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261—2978, (R)752—9332 리

남자 웨이터 급구
628 Bloor St. W.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25세 미혼여성. 신체건강하고 착실한 남자분 연락바람(현재 가족들이 Toronto에 거주)
전화 : 431—6474

German—Canadian(백인)으로 37세임.
한국인 여자친구 원함.
전화 : 1—727—6490(Gert)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5살난 여자아이 보아주시면서 살림 도와 주실분.
(10월15일경부터 입주 가능한분)
전화 : 274—8439(R) 278—4867(Mrs. 옥)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82—6223 (집)
839—8438 (가게)

매매

Coffee Shop in Medical Building
Long Lease & Low Rent.(Short hours)
call after 7:00p.m. 499—5217

"봉학농장"
다음장소에서 9월2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배달하오니 신선하고 싼 채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 2433 Finch Ave. W.
◉오후 7시30분 : 90 Paisley Blvd. W.
(1 Mile North Q. E. W. Missi. Ont.)
◉오후 9시 : 10 Willowridge
(마틴그로브 × 에그린톤)
전화 : 1—775—6256 Mr. 강.

STORE 장비 급매
◉ Shelves Wall 120 ft. Floor 144ft)
◉ Card Rack (20 ft. Card도 포함)
◉ 기타 선물용 유리 Rack
연락처 : 622—0323 Mr. Lee (6p.m 이후)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 주6일 오픈. 월순이익 $2,000이상.
Lottario Machine있고 Plaza안에 있는 Store. 241—5419

토론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Mall안에 있는 장소.
2,500 sq.ft. 단, 하드웨어 비지네스 하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486—0397 김.

가정형편으로 급매. (Grocery Store)
(스카브로 지역) 좋은 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31—0979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 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n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 (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Building for Sale. 982 Pape Ave.
Store & Apt. Suitable for any Kind Business.
전화 : 422—5029 (Mike)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가정 형편으로 급매
VARIETY STORE. 좋은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문의 : 466—0309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4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Variety Store매매(No Grocery)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Rd.)
전화 : 265—9000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763—7317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536—0715, 368—9018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Private Sale(No agents)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가게, 가스바,
on main Highway. Toronto로부터 150mile 동북쪽에 있음.
연매상 : $600,000. 10% Financing.
연중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임.
3 Apt. House 포함
아스킹 : $185,000
꼭 관심있으신분 반드시 영어로 문의바람.
Call (613)332—1312 Mr. Webster

Donuts Shop for Sale
개업한지 한달 되었으며 전망 대단히 좋음.
Good Lease 와 Cheap Rent.
Donuts Shop Busines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오셔서 장소를 보시고 의논해 보세요!
580 Queen St. W.(At Bathurst)

가게렌트

가게 세놓읍니다.(Dundas St. & George St.)
Corner에 위치한 바쁜 거리에 있음.
전화 : 763—3289, 493—9599

아파트렌트

방렌트 하실분.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하숙 또는 독신자 방세 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상세문의는 6시이후
전화 : 530—1046

3 Bed Room Apt. 세놓음
유지비 포함. $478/M.
지역 : Weston × Finch. 전화 : 742—6309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광고문의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최고의 전통, 최신의 경영
1897 — 1982

저희 은행은 85년의 경험과 국내외 140여 점포망을 통하여 북미주 교민여러분의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NEW YORK 지점
53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2
TEL: (212) 935-3500 TLX: WUI 662314

SAN FRANCISCO 지점
INTERNATIONAL BUILDING 601
CALIFORNIA STREET, SAN FRANCISCO, CALIF. 94108
TEL: (415) 788-7850 TLX: RCA 278550

HOUSTON 사무소
ONE HOUSTON CENTER, SUITE 1822, HOUSTON, TEXAS 77010
TEL: (713) 759-1270 TLX: WUI 791076

조흥은행
THE CHO-HEUNG BANK, LTD.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번지
752-7451(대)

토론토사무소
Suite 1125 Commerce Court North
Toronto, Ontario M5L 1B9
(416) 363-3448/9